

2009년
가을호

제3권 제3호 통권 10호 2009년 10월 30일 발행

양식어업 동향

Fisheries Outlook Center

양식어업 일반동향
주요 품목의 수급동향 및 전망
관측정보 수요자 만족도 조사

CONTENTS

제 1 부 양식어업 일반동향 / 1

제 2 부 주요 품목의 수급동향 및 전망 / 25

제 3 부 관측정보 수요자 만족도 조사

/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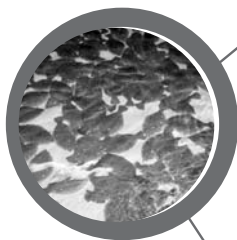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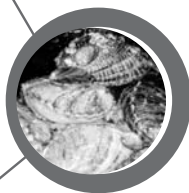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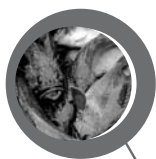
‘양식어업 동향’은 계간지로서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말에 발행되며, 겨울호(1월말 발행)에서는 지난 1년간 정리 및 신년 전망을 부록으로 추가하여 구성됩니다.

집필진

- 옥영수(총괄)
 - 남종오(생산동향 총괄)
 - 안재현(양식어업 일반동향, 김 생산동향)
 - 이남수(시장동향 총괄)
 - 성진우(전복 생산동향)
 - 함영곤(양식어업 일반동향, 미역 생산동향)
 - 김수현(양식어업 일반동향, 넙치 생산동향)
 - 이민규(양식어업 일반동향, 해조류 가격·수출입동향, 3부 만족도 조사)
 - 백은영(넙치·조피볼락·돔·농어 가격·수출입동향)
 - 박태경(조피볼락·돔·농어 생산동향)
 - 노승국(굴 생산동향)
 - 박은영(전복 가격·수출입동향)
 - 김애정(굴 가격·수출입동향)
 - 신수정(자료수집)
 - 연정화(자료수집, 교정 및 편집)
-

제1부

양식어업 일반동향



- | | |
|------------|------|
| 1. 생산동향 | / 2 |
| 2. 수출입동향 | / 6 |
| 3. 주요 경영지표 | / 10 |

1. 생산동향

• 7~8월 양식어업 생산량, 작년 동기 대비 13% 감소

2009년 7~8월의 양식어업 생산량은 총 10만 6,607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9% 감소하였다. 이는 어류를 제외한 모든 부류에서 작년 동기에 비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9년 8월까지의 양식어업 생산량은 102만 4,897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7.0% 감소하였다. 어류와 기타수산동물은 작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했으나, 생산 비중이 높은 패류와 해조류가 감소하면서 전체 생산량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분기별 양식어업 생산량 >

(단위 : 톤, %)

구분			합계	어류	갑각류	패류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2008년	3/4 분기	7월	68,835	6,168	0	6,319	826	55,522
		8월	53,518	7,319	68	8,070	1,097	36,964
		소계	122,353	13,487	68	14,389	1,923	92,486
	8월 누계		1,101,788	64,545	72	214,428	11,885	810,858
2009년	2/4 분기	4월	128,794	11,753	0	37,270	5,374	74,397
		5월	106,900	9,032	0	17,622	2,950	77,296
		6월	91,005	7,506	0	8,675	1,303	73,521
	3/4 분기	7월	58,805	7,879	0	5,797	564	44,565
		8월	47,802	7,420	63	5,929	509	33,881
		소계	106,607	15,299	63	11,726	1,073	78,446
	8월 누계		1,024,897	76,654	63	195,141	14,976	738,063
작년 대비	3/4분기(7~8월)		-12.9	13.4	-7.4	-18.5	-44.2	-15.2
	8월 누계		-7.0	18.8	-12.5	-9.0	26.0	-9.0

자료 : 통계청

• 7~8월 양식어업 생산금액, 2008년에 비해 32% 증가

2009년 7~8월의 양식어업 생산금액은 약 2,422억 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31.9% 증가하였다. 어류와 패류는 작년 동기보다 증가한 반면, 갑각류, 기타수산동물, 해조류는 감소하였다. 특히 어류 생산금액의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이는 올해

여름철에 어류의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품목인 넙치와 조피볼락의 가격이 작년보다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2009년 8월까지의 양식어업 생산금액은 1조 2,075억 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22.9% 증가하였다. 어류, 패류, 기타수산동물은 증가한 반면, 갑각류와 해조류는 감소하였다. 이중 금액 비중이 큰 어류와 패류가 크게 늘면서 전체 생산금액의 증가를 주도하였다.

< 연도별 분기별 양식어업 생산금액 >

(단위 : 백만 원, %)

구분			합계	어류	갑각류	패류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2008년	3/4분기	7월	81,998	46,304	0	19,800	1,370	14,523
		8월	101,643	56,835	1,099	26,959	1,083	15,666
		소계	183,641	103,139	1,099	46,759	2,454	30,190
	8월 누계		982,501	491,265	1,187	203,248	18,828	267,972
2009년	2/4분기	4월	167,196	96,676	0	41,222	8,161	21,136
		5월	130,874	75,999	0	36,994	4,486	13,396
		6월	118,054	65,797	0	27,708	1,714	22,836
	3/4분기	7월	123,819	79,457	0	30,991	1,027	12,344
		8월	118,394	81,430	973	24,526	306	11,160
		소계	242,213	160,887	973	55,516	1,333	23,504
	8월 누계		1,207,505	651,466	973	292,709	20,899	241,458
작년 대비	3/4분기(7~8월)		31.9	56.0	-11.5	18.7	-45.7	-22.1
	8월 누계		22.9	32.6	-18.0	44.0	11.0	-9.9

자료 : 통계청

• 주요 양식품종 생산량, 넙치는 증가하고 피조개와 다시마는 감소

2009년 7~8월의 주요 양식품종 생산량은 작년 동기 대비 어류는 증가하였고, 패류, 기타수산동물 및 해조류는 감소하였다. 어류에서는 넙치류, 돔류 등이 증가하였고, 송어류는 감소하였다. 패류와 해조류의 경우 피조개, 다시마 등 주요 품목의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2009년 8월까지의 주요 양식품종 생산량의 경우, 어류와 기타수산동물은 주요 품종 대부분에서 작년 동기보다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패류와 해조류는 전복, 피조개, 김, 미역 등의 생산이 줄면서 각 부류별 총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 주요 양식품목별 생산량 >

(단위 : 톤, %)

구분		2008년		2009년				작년 대비	
		7~8월	8월 누계	2/4분기	3/4분기		8월 누계		
				6월	7월	8월			
어류	소계	13,132	63,206	27,677	7,683	7,252	75,087	13.7	18.8
	넙치류	6,809	29,313	13,877	4,191	4,281	38,165	24.4	30.2
	조피볼락	537	1,543	690	332	217	1,803	2.2	16.9
	참돔	0	757	128	13	6	934	-	23.4
	감성돔	784	4,587	1,477	359	529	5,843	13.3	27.4
	농어	11	12	0	0	0	3	-100.0	-75.0
	송어류	4,941	22,577	10,916	2,748	2,130	24,405	-1.3	8.1
	기타돔류	50	4,417	589	40	89	3,934	158.0	-10.9
패류	소계	14,113	212,996	62,887	5,771	5,785	193,979	-18.1	-8.9
	전복류	82	145,309	39,830	669	608	141,647	1,457.3	-2.5
	굴류	1,010	3,166	1,747	645	404	4,245	3.9	34.1
	홍합류	55	1,161	138	1	14	2,057	-72.7	77.2
	꼬막류	4,003	8,933	4,861	1,685	2,393	11,094	1.9	24.2
	바지락	387	1,014	363	244	138	1,093	-1.3	7.8
	피조개	8,576	53,413	15,948	2,527	2,228	33,843	-44.6	-36.6
기 타	우렁쟁이	673	6,649	5,393	288	7	7,076	-56.2	6.4
해조류	소계	79,290	788,614	219,546	42,458	29,291	719,311	-9.5	-8.8
	김	0	174,181	20,022	0	0	165,344	-	-5.1
	다시마류	79,290	255,354	185,557	42,458	29,291	271,987	-9.5	6.5
	미역	0	359,079	13,967	0	0	281,980	-	-21.5

자료 : 통계청

• 주요 양식품종 7~8월 생산금액, 일부 품목 제외하고 증가세

2009년 7~8월의 주요 양식품종의 생산금액을 보면, 대부분 주요 품종에서 생산금액이 작년 동기보다 증가하였으나, 농어, 홍합류, 바지락, 다시마 등은 감소하였다.

2009년 8월까지의 주요 양식품종 생산금액은 어류, 패류, 기타수산물등은 작년 동기보다 증가한 반면, 해조류는 감소하였다. 품종별로 농어, 김, 미역 등을 제외한 모든 품종의 생산금액이 작년 동기보다 증가하였다.



< 주요 양식품목별 생산금액 >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08년		2009년				작년 대비	
		7~8월	8월 누계	2/4분기	3/4분기		8월 누계	7~8월	누계
				6월	7월	8월			
어류	소계	98,150	472,155	229,293	76,196	79,117	628,257	58.2	33.1
	넙치류	56,233	266,363	131,380	47,864	53,001	362,858	79.4	36.2
	조피볼락	4,928	13,971	5,848	3,113	2,175	16,040	7.3	14.8
	참돔	2	7,823	1,152	155	55	9,391	9,543.3	20.0
	감성돔	5,929	34,855	12,632	3,138	4,733	47,643	32.8	36.7
	농어	134	139	0	0	0	40	-100.0	-71.0
	숭어류	30,680	131,442	74,755	21,695	18,628	170,737	31.4	29.9
	기타돔류	244	17,562	3,525	232	525	21,548	210.3	22.7
패류	소계	45,798	199,127	103,838	30,790	23,974	288,824	19.6	45.0
	전복류	63	48,446	18,011	325	304	74,755	901.7	54.3
	굴류	32,115	105,165	60,236	22,777	15,054	150,933	17.8	43.5
	홍합류	221	3,456	582	7	52	5,708	-73.2	65.2
	꼬막류	7,317	16,673	10,466	3,895	5,030	23,080	22.0	38.4
	바지락	3,630	9,426	4,111	2,045	1,539	11,483	-1.3	21.8
	피조개	2,452	15,961	10,433	1,740	1,995	22,865	52.3	43.3
	기타	1,344	11,174	9,728	692	20	13,152	-47.0	17.7
해조류	소계	16,705	238,987	54,642	9,350	4,055	216,834	-19.8	-9.3
	김	0	153,303	13,819	0	0	131,403	-	-14.3
	다시마류	16,705	42,127	37,198	9,350	4,055	52,333	-19.8	24.2
	미역	0	43,557	3,625	0	0	33,098	-	-24.0

자료 : 통계청

2. 수출입 동향

- 7~8월 수산물 수출량, 작년 동기 대비 2% 감소

2009년 7~8월 수산물 총 수출량은 7만 6,399톤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2.1%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수산물 수입량은 59만 7,470톤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4.9% 감소하였고, 수입금액은 4억 4,857만 달러로 17.4% 감소하였다.

< 수산물 수출입 동향 >

(단위 : 톤, 만 달러, %)

구분	2008년		2009년					작년 대비	
	7~8월	8월 누계	2/4분기	3/4분기		8월 누계		7~8월	누계
			6월	7월	8월				
수출	물량	78,042	384,875	39,767	41,540	34,859	383,454	-2.1	-0.4
	금액	22,381	93,860	11,662	11,251	9,542	90,794	-7.1	-3.3
수입	물량	702,355	2,631,298	308,665	290,332	307,138	2,566,868	-14.9	-2.4
	금액	54,276	215,102	22,635	22,104	22,753	179,424	-17.4	-16.6

주 : 각 품목의 수출입은 환선어와 기초 가공품을 합한 실적으로 품목별 수출은 적용되지 않았음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한편 8월까지 총 수출량은 38만 3,454톤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수입량은 256만 6,868톤으로 작년보다 2.4% 감소했다.

- 주요 양식 어·패류 수출량 크게 증가, 해조류는 감소

7~8월 주요 양식수산물 중 넙치, 패류의 수출은 작년 동기보다 증가한 반면, 해조류는 감소하였다.

넙치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16.0%가 증가하였으며, 패류 중 바지락은 작년 동기 대비 196.7%, 전복은 77.9% 증가하였다. 이는 2/4분기에 이어 환율 등 수출 환경이 작년보다 양호하여 대일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해조류는 2/4분기의 수출 부진이 3/4분기까지 지속되었는데, 전 분기에는 미역 수출량이 감소했으나, 이번 분기에는 톳 수출량이 감소하여 전체 수출량을 감소시켰다.

< 주요 양식품목의 수출량 >

(단위 : 톤, %)

구분		2008년		2009년				작년 대비	
		7~8월	8월 누계	2/4분기	3/4분기		5월 누계		
				6월	7월	8월			
어류	넙치	637	2,026	269	318	421	2,758	16.0	36.1
패류	소게	2,553	12,313	2,290	1,707	1,590	16,408	29.1	33.3
	굴	1,332	7,163	709	366	305	5,770	-49.6	-19.4
	바지락	717	3,881	1,372	1,131	997	9,030	196.7	132.7
	피조개	394	952	120	119	182	924	-23.4	-3.0
	전복	110	318	88	91	105	685	77.9	115.6
해조류	소게	2,825	16,613	1,214	1,274	1,244	14,475	-10.9	-12.9
	김	1,119	4,969	898	820	722	6,137	37.9	23.5
	미역	519	9,467	182	287	185	7,084	-9.1	-25.2
	톳	1,187	2,177	134	167	337	1,255	-57.6	-42.4

주 : 각 품목의 수출입은 환선어와 기초 가공품을 합한 실적으로 품목별 수출은 적용되지 않았음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 주요 양식품목의 수출금액 >

(단위 : 만 달러, %)

구분		2008년		2009년				작년 대비	
		7~8월	8월 누계	2/4분기	3/4분기		8월 누계		
				6월	7월	8월			
어류	넙치	707	2,483	270	332	520	2,576	20.4	3.7
패류	소게	1,613	6,932	1,288	966	949	8,114	18.8	17.0
	굴	650	3,698	548	240	176	3,249	-36.0	-12.1
	바지락	183	1,030	365	308	279	1,985	220.1	92.8
	피조개	412	1,055	116	125	133	864	-37.6	-18.1
	전복	367	1,150	259	294	361	2,015	78.5	75.3
해조류	소게	2,365	8,370	1,091	996	1,132	8,021	-10.0	-4.2
	김	1,086	4,771	816	650	654	5,131	20.1	7.5
	미역	221	1,598	95	117	89	1,294	-6.5	-19.0
	톳	1,058	2,001	180	228	389	1,596	-41.7	-20.2

주 : 각 품목의 수출입은 환선어와 기초 가공품을 합한 실적으로 품목별 수출은 적용되지 않았음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 주요 양식수산물 수입, 작년 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

7~8월 주요 양식수산물 중 패류는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입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지락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와 달리 해조류는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품목별로는 굴, 바지락, 김의 경우는 증가하였으며, 피조개, 전복, 미역, 톳은 감소하였다.

< 주요 양식품목의 수입량 >

(단위 : 톤, %)

구분		2008년		2009년				작년 대비	
		7~8월	8월 누계	2/4분기	3/4분기		8월 누계		
				6월	7월	8월		7~8월	누계
패류	소계	1,048	6,600	1,801	2,039	1,239	8,989	213.0	36.2
	굴	1	7	7	25	0	41	3,809.8	527.6
	바지락	913	6,031	1,745	1,968	1,212	8,663	248.2	43.6
	피조개	117	510	43	34	20	226	-53.8	-55.6
	전복	17	53	6	12	8	59	14.0	11.3
해조류	소계	657	2,848	329	190	99	1,649	-55.9	-42.1
	김	3	147	1	22	21	54	1,554.1	-63.5
	미역	595	2,599	312	157	71	1,541	-61.7	-40.7
	톳	60	102	16	11	7	54	-69.6	-46.7

주 : 각 품목의 수출입은 환선어와 기초 가공품을 합한 실적으로 품목별 수출은 적용되지 않았음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 주요 양식품목의 수입금액 >

(단위 : 만 달러, %)

구분		2008년		2009년				작년 대비	
		7~8월	8월 누계	2/4분기	3/4분기		8월 누계		
				6월	7월	8월			
패류	소계	231	1,129	184	233	146	1,106	64.3	-2.0
	굴	1	2	4	10	0	17	1,492.7	637.2
	바지락	129	691	146	190	123	844	142.2	22.1
	피조개	53	244	19	13	7	120	-62.0	-50.6
	전복	48	192	15	21	17	125	-23.1	-34.6
해조류	소계	63	371	31	18	21	181	-39.7	-51.1
	김	4	149	2	2	2	10	5.5	-93.2
	미역	48	201	25	12	15	152	-44.2	-24.4
	톳	11	21	4	3	4	19	-35.3	-7.4

주 : 각 품목의 수출입은 환선어와 기초 가공품을 합한 실적으로 품목별 수출은 적용되지 않았음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주요 양식품목 중 패류의 경우 바지락 수입금액 증가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해조류 수입금액은 미역과 톳의 수입 감소로 작년 동기에 비해 감소하였다.

• 주요 활어 수입량, 작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

2009년 7~8월 주요 활어품목의 수입량은 2,611톤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29.1% 감소하였으며, 금액으로도 37.1% 감소한 1,44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고환율로 인한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활어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 주요 활어품목의 수입 실적 >

(단위 : 톤, 만 달러, %)

구 분		2008년		2009년				작년 대비	
		7~8월	8월 누계	2/4분기	3/4분기		누계	7~8월	누계
				6월	7월	8월			
합계	물량	3,682	15,054	1,327	1,344	1,267	9,205	-29.1	-38.9
	금액	2,290	9,102	720	737	703	4,891	-37.1	-46.3
돔류	물량	1,481	5,470	627	591	429	3,549	-31.1	-35.1
	금액	1,019	3,995	393	361	276	2,245	-37.6	-43.8
농어	물량	974	4,492	440	399	492	3,149	-8.6	-29.9
	금액	620	2,565	189	181	244	1,385	-31.4	-46.0
홍민어	물량	844	3,396	136	184	211	1,412	-53.2	-58.4
	금액	333	1,103	45	64	76	480	-58.1	-56.5
노래미	물량	383	1,695	125	170	135	1,095	-20.3	-35.4
	금액	318	1,440	93	132	108	781	-24.7	-45.7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수출입통계」

3. 주요경영지표

2009년 4/4분기 양식어업 경영환경 전망

- ▶ 수산물 소비 :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고 민간의 소비심리도 개선되고 있어 수산물 소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 양식어업 생산 : 대출 금리가 다소 상승하고 있어 양식어가의 부담은 3/4분기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료가격 또한 3/4분기 대비 강보합세가 예상되므로 어가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 수출입 :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수산물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요인별 2009년 4/4분기의 양식어업 경영환경 전망 >

요 인	어업경영에 주는 영향	비 고
경기 · 민간소비	긍정적	경기 회복세 가시화
금 리	부정적	낮은 금리 수준에서 상승세 전환
유 가	중립적	유가 완만한 상승세, 환율은 하락세
사료비	부정적	강보합세 예상
대체재 가격	긍정적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

경기동향 및 전망

• 한국경제, 하반기 성장률 플러스(+)로 전환될 듯

최근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GDP 성장률은 1/4분기 -4.2%를 고비로 하락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의 고성장에 따른 수출 증가,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 부양정책 등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기 회복 추세에 따라 하반기에는 플러스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한다.

< 국내 경제동향 및 전망 >

(단위 :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4	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성장률	5.1	4.9	-0.3	2.2	-4.2	-2.2	-3.2	1.9	-0.6
민간 소비지출	5.1	3.1	-1.2	0.9	-4.4	-0.8	-2.6	-0.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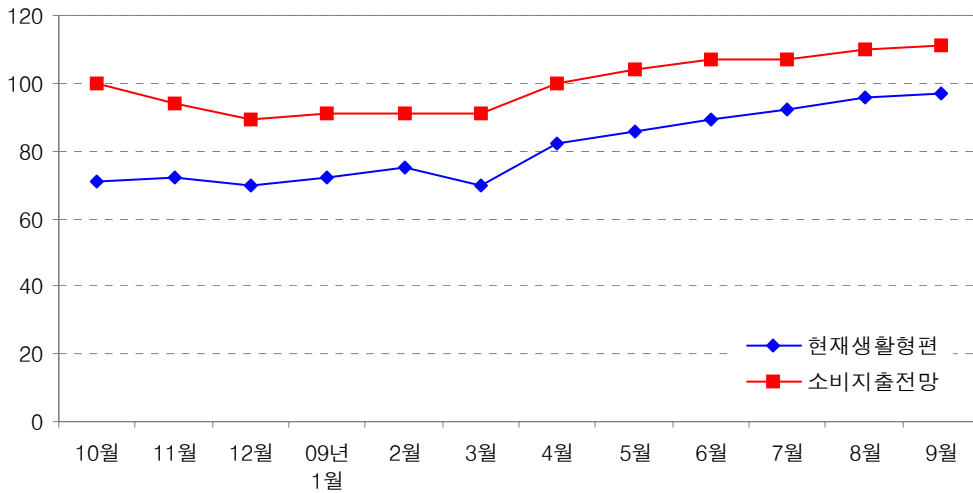
주 : *는 LG경제연구원 전망치(9월 23일 발표)임

자료 :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민간소비 또한 주가 상승 등에 따른 자산가치 증가, 저금리 등으로 점차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의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심리지수는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9월에는 97을 기록하였으며, 6개월 후의 소비지출 전망은 4월부터 다시 100을 넘어서기 시작하여 9월에는 111까지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경기 및 소비심리 회복은 4/4분기의 수산물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주 : 소비자심리지수는 100 초과일 때는 낙관적, 100 미만일 때는 비관적인 견해를 가짐을 의미함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 시장금리, 상승세로 전환

국제금융시장 안정화 등으로 상반기 중 하락세를 지속하던 시장금리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등으로 3/4분기 들어 소폭 상승하였다. 금년 1/4분기 중 3.64%까지 하락하였던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3/4분기 중에는 4.30%로 상승하였으며 회사채 수익률(3년, AA- 등급)은 2/4분기 중에 바닥을 딛고 3/4분기에는 5.59%까지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대출금리도 소폭 상승하였는데, 작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총 대출 잔액 기준)는 금년 2/4분기 중에는 5.43%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7~8월에는 평균 5.47%를 기록하며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이러한 금리 상승세는 기업경영에 다소 부담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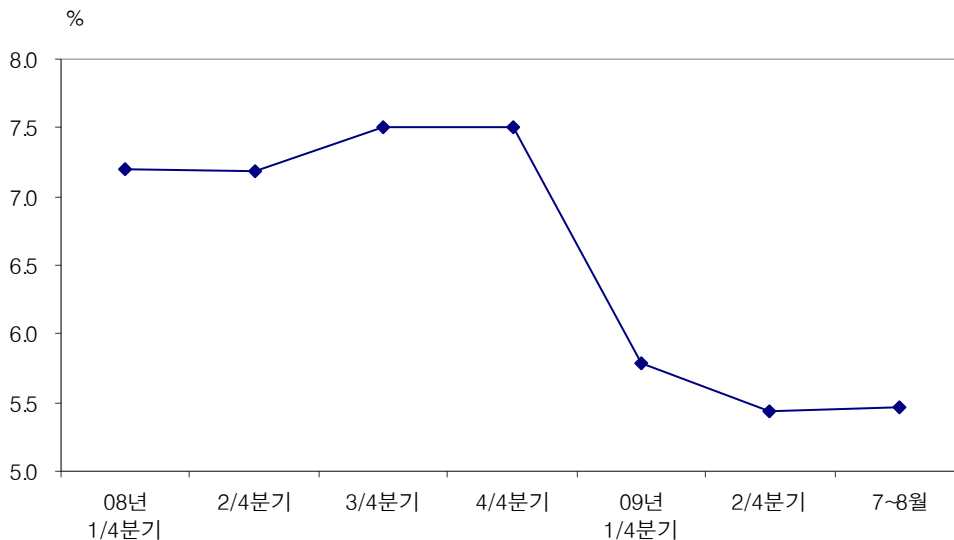
< 시장 금리 동향 >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CD유통수익률(91일)	5.45	5.37	5.69	5.44	5.49	2.79	2.41	2.51
국고채(3년)	5.22	5.32	5.85	4.68	5.27	3.64	3.89	4.30
회사채(3년,AA-)	6.35	6.27	7.19	8.29	7.02	6.85	5.35	5.59

자료 : 한국은행

<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추이(총 대출 잔액기준) >



자료 : 한국은행

• 원화가치, 상승세 지속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안전자산인 달러화 선호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금년 1/4분기 중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웃돌기도 했으나, 글로벌 금융 불안 해소 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4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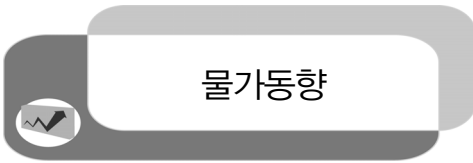
4/4분기에도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 안전자산 선호현상 약화 등으로 달러화 약세(원화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산물 수출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통화에 대한 환율 동향 >

구 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원/달러	956	1,017	1,063	1,363	1,103	1,415	1,289	1,241
원/100엔	909	973	989	1,421	1,077	1,510	1,323	1,325

자료 : 한국은행





• 3/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 작년 동기 대비 2% 상승

금년 3/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3으로 작년 동기보다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3/4분기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소비자 물가지수 및 상승률 >

구 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지수 (2005=100)	107.4	109.6	111.1	110.8	109.7	111.6	112.7	113.3
상승률 (%, 전년 동기 대비)	3.8	4.8	5.5	4.5	4.7	3.9	2.8	2.0

자료 : 통계청

• 3/4분기 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 작년 동기 대비 11% 상승

2009년 3/4분기 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118.0으로 전 분기보다는 2.3% 하락했으나, 작년 동기 대비로는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에 이어 굴과 미역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굴의 경우, 어기 시작 전 생산이 되지 않고 있어 지난 어기의 높은 가격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미역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감소한데다가, 제조·유통 비용 증가 등이 소비자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 >

(2005년=100)

구 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농축수산물	101.9	100.8	103.6	102.8	102.3	109.2	110.8	108.7
수산물	104.4	105.8	106.8	108.4	106.4	114.9	120.8	118.0
• 굴	100.8	96.2	96.4	126.8	105.0	126.1	124.8	125.0
• 조개	100.5	101.6	102.8	102.9	101.9	104.4	106.5	109.4
• 생선회	102.8	103.4	103.8	104.0	103.5	103.9	105.0	108.9
• 김	106.3	108.6	110.2	111.2	109.1	111.0	111.6	113.0
• 미역	118.8	121.9	127.4	137.2	126.3	139.3	139.8	140.1
농산물(곡물)	99.0	100.7	102.5	105.2	101.9	104.9	103.0	100.8
농산물(채소)	123.1	99.3	102.4	96.6	105.4	118.4	115.7	108.6
농산물(과실)	86.4	89.8	91.1	90.0	89.3	94.3	98.9	94.4
농산물(기타)	102.1	100.8	102.1	106.6	102.9	110.9	109.5	109.6
축산물	100.1	107.8	113.9	110.7	108.1	113.8	116.9	120.4
• 쇠고기(국산)	107.2	104.7	105.8	107.0	106.2	108.9	110.7	119.1
• 쇠고기(수입)	95.0	92.7	97.4	101.2	96.6	103.3	95.5	95.2
• 돼지고기	93.4	117.3	128.1	114.7	113.4	117.9	127.0	129.1
• 닭고기	101.4	98.8	117.6	121.1	109.8	133.3	134.2	1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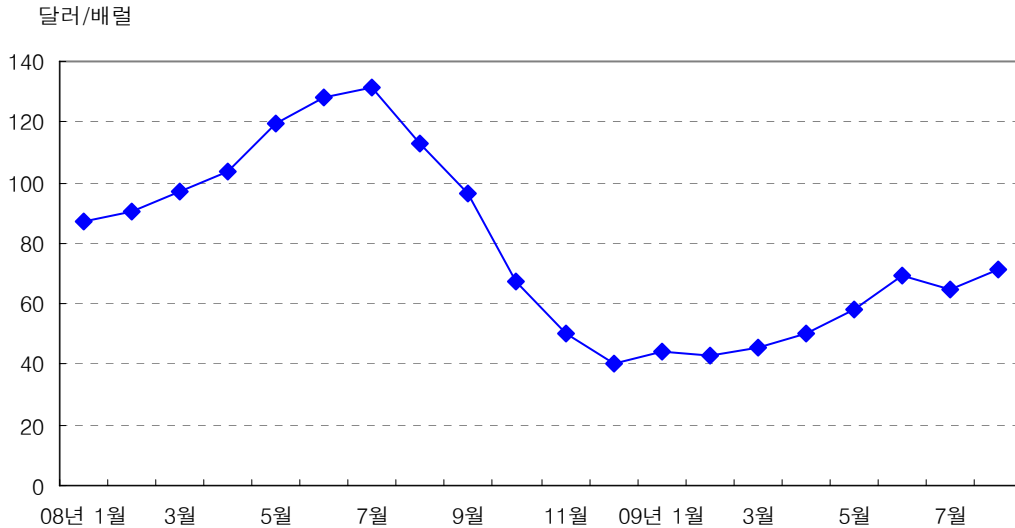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국제 유가, 완만한 상승세 보일 듯

금년 2/4분기 이후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던 국제유가는 수요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음에 따라 3/4분기에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향후 경기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른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4분기에는 3/4분기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세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각 국가들의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감퇴됨에 따라 세계 석유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유가 상승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두바이(Dubai)유 국제 현물가격 동향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어업용 면세유 가격, 유가 상승에 따라 상승세 전환

국제 유가가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3/4분기 평균 면세유 가격(어업자 공급가 기준, 저유황 경유)은 드럼당 136,570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서는 17.8% 상승했으나, 작년 동기보다는 39.1% 낮았고, 작년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 동향 >

(단위 : 원/드럼, %)

구분		고유황경유	저유황경유	휘발유	
2007년	1/4분기		87,093	99,207	93,080
	2/4분기		96,833	109,673	113,080
	3/4분기		103,207	115,607	115,013
	4/4분기		115,293	126,073	116,280
	연간		100,607	112,640	109,363
2008년	1/4분기		130,820	142,340	133,413
	2/4분기		175,427	205,407	161,213
	3/4분기		215,577	224,357	189,097
	4/4분기		157,830	166,890	146,963
	연간		169,913	184,748	157,672
2009년	1/4분기		107,157	116,957	98,697
	2/4분기		107,877	115,957	117,697
	3/4 분기	7월	126,570	135,290	135,430
		8월	125,690	134,410	132,750
		9월	131,210	140,010	141,350
		평균	127,823	136,570	136,510
작년 동기 대비		-40.7	-39.1	-27.8	
전 분기 대비		18.5	17.8	16.0	

자료 : 수협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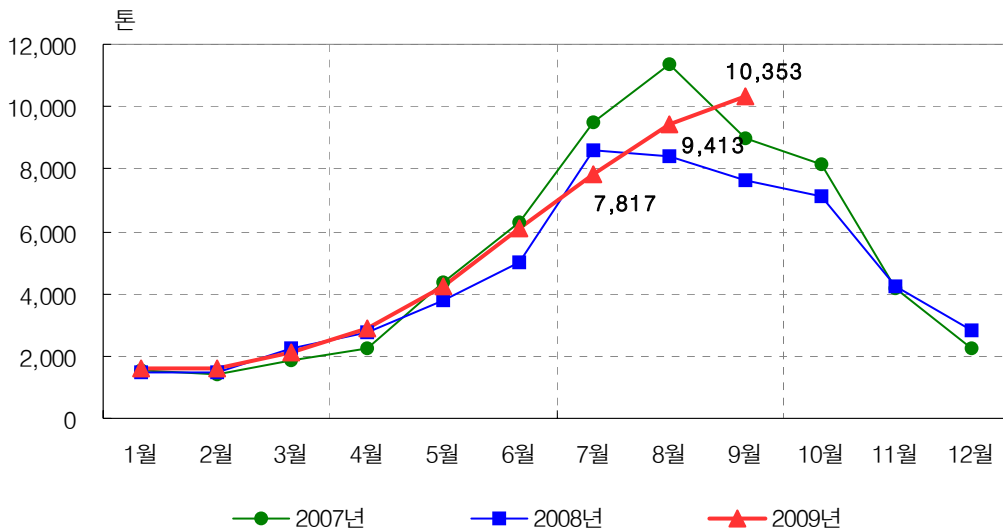


사료동향

• 3/4분기 배합사료 판매량, 작년 동기 대비 12% 증가

3/4분기 배합사료 판매량은 2만 7,582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12.0% 증가했다. 이는 수입 생사료의 경우 고환율로 단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국내산 생사료의 생산량 또한 저조하기 때문이다.

< 배합사료 판매 추이 >



자료 : 우성, 천하제일, 코스프, 퓨리나, CJ, 대한, 대상, SCF, 수협사료의 배합사료 판매실적임

• 3/4분기 주요 양식어류용 배합사료 판매량, 작년 동기 대비 15% 증가

3/4분기 주요 양식어류용 배합사료 판매량은 2008년 동기보다 14.9% 증가한 2만 2,784톤이었다. 품종별로는 조피볼락을 제외한 모든 어종의 배합사료 판매량이 증가했다.

< 주요 양식어류용 배합사료 판매동향 >

(단위 : 톤, %)

구분	2009년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소계		
합계	12,243	6,423	7,548	8,813	22,784	86.1	14.9
넙치	4,364	1,507	1,819	2,358	5,684	30.2	19.0
조피볼락	3,115	1,908	2,540	2,559	7,007	124.9	-3.8
돔	2,140	1,171	1,353	1,574	4,099	91.5	47.8
숭어	2,624	1,837	1,836	2,322	5,994	128.5	19.9

주 : 넙치, 조피볼락은 EP사료와 분말사료를 합한 것임. 돔, 숭어는 EP사료임

자료 : 우성, 천하제일, 코스프, 퓨리나, CJ, 대한, 대상, SCF, 수협사료의 배합사료 판매실적임

• 3/4분기 주요 사료어 가격, 품종별로 등락차 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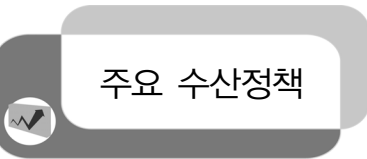
부산공동어시장에 위판된 주요 사료어의 가격은 품종별 등락차가 컸다. 생산이 전반적으로 원활했던 풀치와 전갱이(하)의 경우는 작년 동기보다 하락했다. 이와 달리 강달이, 갈고등어는 작년보다 위판량이 줄면서 가격이 20% 이상 상승했다.

< 주요 사료어 위판가격 동향 >

(단위 : 원/kg, %)

구분	2009년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평균		
풀치	1,086	794	658	598	639	-41.2	-32.8
강달이	686	3,639	1,480	2,139	2,118	209.0	22.4
갈고등어	525	735	595	584	592	12.8	25.7
전갱이(하)	759	934	717	527	660	-13.0	-29.2
전어	844	-	391	762	416	-50.7	2.3
청어	823	333	-	105	332	-59.6	-17.7
기타어류	650	633	639	618	627	-3.6	17.7

자료 : 부산공동어시장



주요 수산정책

•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저탄소 녹색성장 주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기후 변화 대응과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폐 자원과 바이오매스’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해안과 제주도 연안의 바다 사막화 현상 방지와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바다숲 조성을 통해 수산 분야 바이오매스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까지 연근해에 7,000ha의 바다숲을 조성하고 2020년까지 50만ha 규모의 대규모 해조류 양식장을 조성하여 22.7억리터의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할 예정이다.

폐자원 및 바이오 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에 소요될 투자비는 2013년까지 총 5조 6,302억 원, 2020년까지는 약 10조 4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0년까지 총 15조 2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 식당에서 ‘전복 삼계탕’ 시식 행사 개최

여름철 대표 보양 음식인 삼계탕에 전복을 넣은 ‘전복 삼계탕’ 시식 행사가 한국 전복협회와 한국토종닭협회의 공동 개최로 7월 24일(中伏) 서울 여의도 국회 식당에서 열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복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삼복(三伏)이 전복을 만나는 ‘전복 삼복(三鰯) 데이’」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복요리 페스티벌 및 직판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전복이 대중 식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어장환경 관리 선진화 방안’ 수립

농림수산식품부는 연안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염 부하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근해 어장의 수산자원회복과 녹색성장을 위한 ‘어장환경 관리 선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장환경이 악화된 양식어장에 대해서는 어장관리해역



및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을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부터 연차별로 연안 양식어장의 오염정도, 어장수용력, 생산성을 측정하는 어장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한다. 어장관리해역 지정 후 단계별로 어장정비를 실시하고 어장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권자와 협의하여 어장휴식을 실시하며, 내만에 위치한 가두리양식장은 외해로 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근해 어장에 공익적 기능을 도입함과 동시에 어촌사회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어장환경보전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어장환경보전 직불제는 연안어장의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 홍콩 Food Expo에서 한국산 수산물 21만달러 판매 실적 올려

농림수산물식품부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주관으로 ‘2009 Hongkong Food Expo’에 수산물 수출업체 8개사가 조미김, 전복통조림, 조미오징어 등을 출품하여 총 21만달러의 판매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조미김은 한국에서 가져간 물량이 행사기간 이전에 모두 팔려서 홍콩 내 수입바이어가 가지고 있던 물량을 제공받아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수산물의 중화권 수출을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업체별 판매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참가업체별 판매 실적 >

(단위 : US달러)		
업체명	품목	판매액
대한무역상사	조미김	45,000
대창식품	조미김	42,000
씨케이글로벌	날치알, 훈제연어	19,000
신한	조미오징어	21,000
씨허브	해조약초환, 해조추출화장품	14,000
청아굿푸드	젓갈류	14,000
청해진미완도전복	전복통조림	11,000
씨푸드	대게, 전복통조림	43,000
합계		209,000

- 한국산 수산물, 러시아 시장 수출 확대 계기 마련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2009 모스크바 수산·식품박람회」에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업체 8개사가 참가하여 목표액 139만달러보다 초과한 149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보였다.

55개 국가 1,127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무료 시식 행사를 통해 한국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체험하도록 하고 각국 수입상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였다. 이번 박람회에는 조미김, 미역, 냉동굴, 조미오징어, 조미날치알, 게엑기스 등 20개 품목을 출품하여 방문객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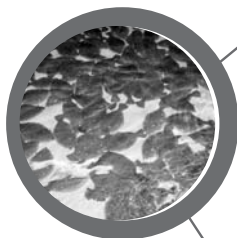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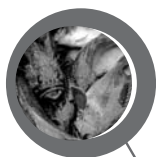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미김과 미역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선호도가 높고 러시아 식품 시장의 규모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산물 업체의 러시아 수출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활발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제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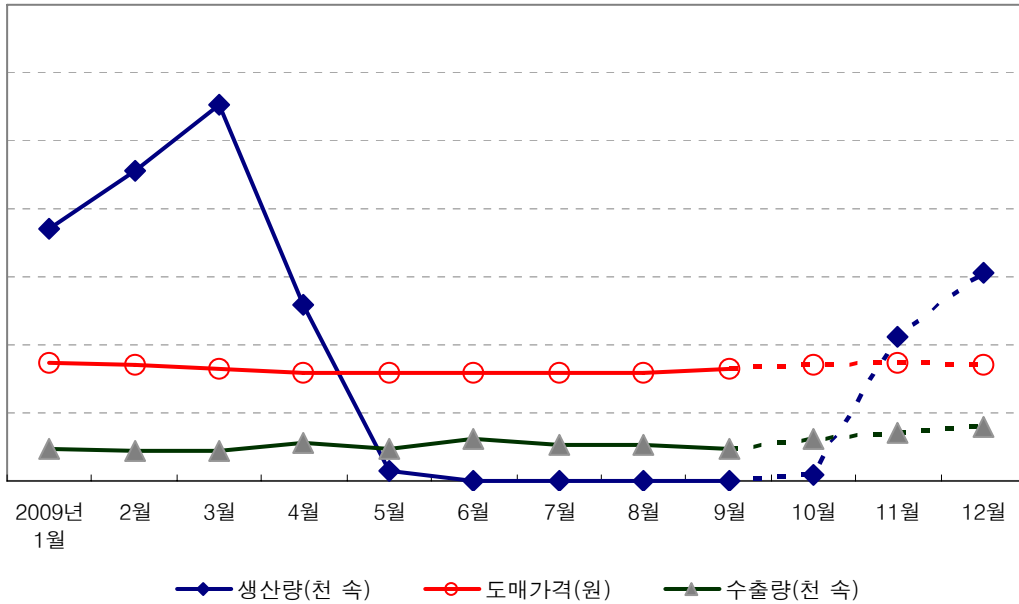
주요 품목의 수급동향 및 전망

돔·농어를 제외한 6개 품목의 통계는 당 센터에서 조사·추정한 수치로 정부 공식 통계와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1. 김 | / 26 |
| 2. 미역 | / 35 |
| 3. 넙치 | / 41 |
| 4. 조피볼락 | / 50 |
| 5. 참돔 | / 59 |
| 6. 농어 | / 65 |
| 7. 굴 | / 71 |
| 8. 전복 | / 77 |

1. 김



수급전망

- ▶ 2010년산 시설 의향 책수는 작년보다 다소 적은 수준이지만, 작황은 작년보다 좋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0년산 생산량은 작년보다는 많겠고, 예년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 ▶ 11월부터는 햇김이 출하되므로 재고 물량을 감소시키고자 출하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도매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동향

• 2010년산 김 시설 동향, 작년보다 적은 66만 5,000척 예상

9월에 실시한 양식어가 설문조사 결과, 2010년산 김 시설 의향 척수는 약 66만 5,000척으로 작년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충남, 부산은 작년보다 각각 2.6%, 2.2%, 2.5% 감소했으나, 전북과 경기도는 각각 1.8%,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산 김 생산 지역별 시설 동향 >

(단위: 만 척, %)

구 분	전국	전남	전북	충남	부산	경기
2008년산	61.8	40.9	11.5	5.5	2.2	1.7
2009년산	67.6	45.2	12.0	6.0	2.4	2.0
2010년산(의향)	66.5	43.9	12.3	5.9	2.3	2.1
점유율	100.0	66.0	18.4	8.9	3.5	3.2
작년산 대비	-1.6	-2.6	1.8	-2.2	-2.5	4.3

* 당 센터, 2008년산은 표본어가 시설 의향 조사 결과(2007년 12월) 및 서천, 군산의 위성영상 판독 결과(2008년 1월), 2009년산은 위성영상 판독 결과(2009년 1월)이며, 2010년산은 표본어가 시설 의향 조사 결과(2009년 9월)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 2010년산 일반김 시설 비중, 작년보다 증가

2010년산 김 품종별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김 시설 비중은 62.4%로 2009년산보다 증가하였고, 돌김류는 37.6%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 김 품종별 시설 비율 >

(단위 : %)

구 분	2006년산	2007년산	2008년산	2009년산	2010년산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일반김	53.1	53.0	60.7	59.9	62.4
돌 김	46.9	47.0	39.3	40.1	37.6

* 당 센터, 2006년산~2009년산은 전년 10월 시설 조사 결과, 2010년산은 2009년 9월 시설 의향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 2010년산 김 생산량, 9,500만 속으로 예년 수준 전망

올해 양식어가의 김 시설 의향 채수와 연간 추정 작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0년산 생산 추정량은 약 9,500만 속으로 전망된다. 올해 시설은 2009년산보다 다소 적고, 작황은 작년보다는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해황의 변동이 심하지 않다면 2010년산 김 생산량은 작년산보다는 많겠고, 예년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김 종묘 생산량, 작년 대비 감소

2010년산 김 종묘 생산량은 약 284만 상자로 작년의 291만여 상자보다 2.3% 감소하였다. 이 중 일반김 종묘 생산량은 작년보다 감소했으나, 돌김류는 증가했다(잇바디돌김은 증가, 모무늬돌김은 작년과 비슷). 지역별로 신안 인근, 부산, 경남 등에서는 작년보다 종묘 생산량이 증가했고, 그 외 지역에서는 감소했다.

< 김 품종별 종묘 생산 실적(2009년) >

(단위 : 만 상자, %)

구분	합계		일반김		돌김류(잇바디+모무늬)	
	2009년	작년 대비	2009년	작년 대비	2009년	작년 대비
전국	284.4	-2.3	110.7	-9.2	173.6	2.6
소계	274.0	-2.8	100.4	-11.0	173.6	2.7
신안 인근	170.3	2.2	58.4	5.7	111.9	0.4
해남	88.7	-7.3	30.7	-25.9	58.0	6.8
완도	4.8	0.0	4.4	5.0	0.4	-33.3
고흥	6.9	-42.5	6.9	-42.5	0.0	생산 없음
강진	2.8	0.0	0.0	생산 없음	2.8	0.0
부산, 경남	7.3	43.1	7.3	46.0	0.0	생산 없음
충남, 전북	3.06	-25.0	3.06	-25.0	0.0	생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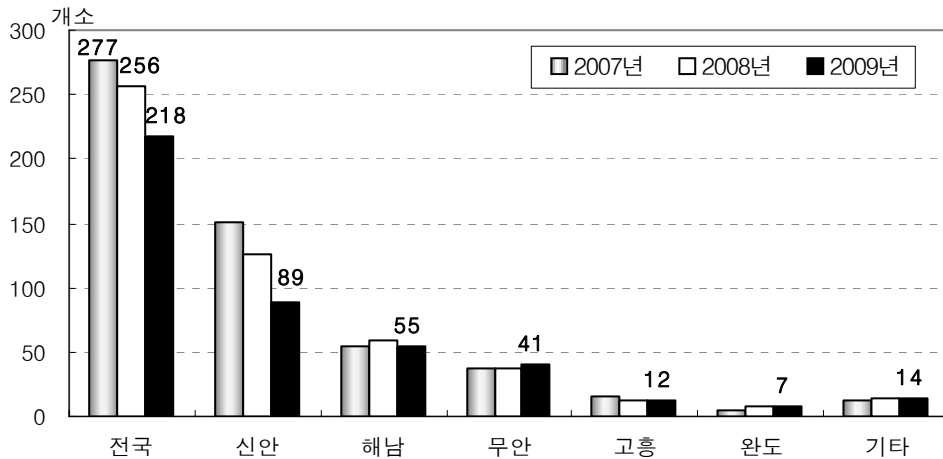
주 : 1상자는 500g 기준(평균 패각수는 45~50개), 신안 인근은 신안·목포·영암·무안이며, 경남은 진해·고성임
 * 당 센터 지역자문위원 설문조사 결과(2009년 8월)

한편 산지 종묘생산업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채묘용 패각 사상체의 전국 평균 가격은 상자당(1상자 500g 기준) 약 2,560원으로 작년의 2,508원보다 가격이 다소 상승하였는데, 이는 올해 종묘 생산량이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 김 종묘 배양장 수, 작년 대비 감소

올해 김 종묘를 생산하는 배양장 수는 220여 개로 작년보다 15% 감소했다. 지역별로 신안이 전체의 4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남 25.2%, 무안 18.8%, 고흥 5.5% 순이었다. 그러나 올해 김 종묘 배양장의 총 수조 면적은 약 34만 m²로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 김 종묘 배양장 지역별 분포 >



주 : 기타는 목포, 영암, 강진, 태안, 서천, 고창, 부산, 진해, 고성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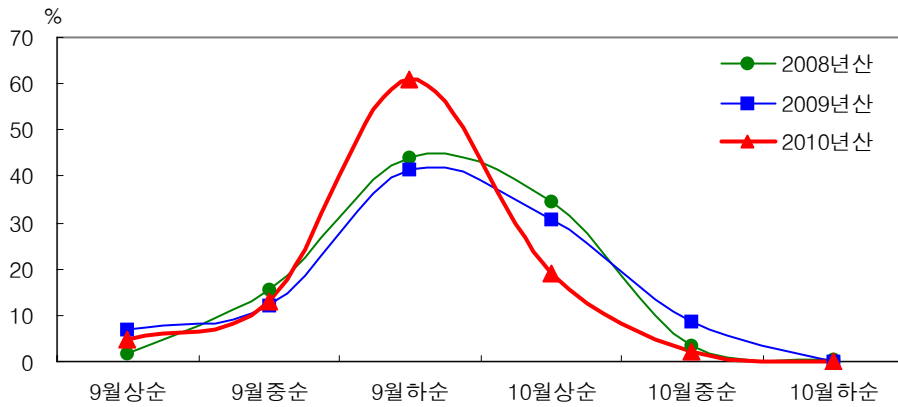
* 당 센터 지역자문위원 설문조사 결과(2009년 8월)

• 9월 하순 김 채묘 비율, 작년보다 높게 나타나

양식어가 설문조사 결과, 2010년산 채묘 시기는 2009년산에 비해 9월 하순에 실시하는 어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중 간만의 차이가 가장 적은 시기에(9월 26일, 조금) 채묘하는 어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채묘시기를 비교해 보면, 9월 하순까지 채묘를 시작한다고 응답한 어가 비율은 2010년산의 경우 78.9%로 나타나 2009년산(60.7%)이나 2008년산(61.3%)에 비해 이 시기의 채묘 비율이 높았다.

< 채묘 시작 시기 비교 >



* 당 센터 표본어가 시설 의향 조사 결과(2009년 9월)

• 올해 전남 육상채묘, 작년보다 27% 증가

올해 전남 해남·진도·고흥·장흥 지역에서 추진된 육상채묘 물량은 약 5만 6,000책 (2.2m×40m 기준)으로 작년의 약 4만 4,000책보다 27% 가량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해남 2만 5,000책, 진도 6,545책, 고흥 1만 9,636책, 장흥 5,114책 등이다.

<전남 육상채묘 현황>

구 분		합계	해남	진도	고흥	장흥
육상채묘 책수	2008년	44,214	27,850	0	12,273	4,091
	2009년	56,295	25,000	6,545	19,636	5,114
	증감률(%)	27.3	-10.2	-	60.0	25.0
육상채묘 시기			9월 상순~ 10월 하순	9월 상순~ 하순	9월 하순~ 10월 중순	9월 하순~ 10월 상순

(단위 : 책(2.2m×40m), %)

* 당 센터, 표본어가 의향조사 결과(2009년 10월)



가격동향

• 3/4분기 마른김 도매가격, 작년 동기 대비 10% 하락

3/4분기 김밥용 마른김(中品)의 평균 도매가격(당 센터 조사가격)은 속당 3,007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8.9% 상승한 반면, 작년 동기간보다는 10.0% 낮은 수준을 보였다. 화입비용이 반영되고 추석 명절 수요 증가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 분기 대비 상승하였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도매거래가 부진하여 작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다.

재래김과 파래김의 도매가격 역시 전 분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작년 동기간보다 하락하였다. 반면 돌김의 경우 예년보다 물량이 부족하여 도매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 높았다.

< 김 종류별 마른김(中品)의 도매가격 동향 >

(단위 : 원/속, %)

구 분	2009년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평균		
김밥용김	2,761	3,018	2,998	3,005	3,007	8.9	-10.0
돌김	3,196	3,449	3,388	3,450	3,429	7.3	4.3
재래김	2,843	3,122	3,092	3,118	3,111	9.4	-5.1
파래김	1,898	2,159	2,205	2,217	2,193	15.6	-8.4

* 당 센터 조사가격

• 3/4분기 김밥용 마른김 소비자가격, 속당 평균 3,899원

김밥용 마른김의 3/4분기 평균 소비자가격은 3,899원이었으며, 9월 가격은 전월보다 0.1% 상승하였다. 돌김의 소비자가격은 4,607원을 기록하였으며, 볶음 자반김(1장)은 3,663원으로 나타났다.

< 김 종류별 마른김(中品)의 소비자가격 동향 >

(단위 : 원/속, %)

구 분	2009년		
	8월	9월	평균
김밥용김	3,897	3,900	3,899
돌김	4,602	4,612	4,607
채래김	4,040	4,063	4,052
파래김	2,935	2,927	2,931
볶음자반김(1장)	3,625	3,700	3,663

* 당 센터 조사가격

※ 2009년 8월부터 마른김의 소비자 가격 조사는 전국 5대 재래시장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9월 재고량, 작년 대비 14% 정도 적은 3,400만 속

2009년산 김 생산량이 작년 및 예년보다 적었기 때문에 재고량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3/4분기의 재고량은 약 3,400만 속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전 분기보다 37.8%, 작년 동기간보다 14.4% 적은 양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 평균치보다도 0.4% 적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김 재고량 동향 >

(단위 : 만 속, %)

구 분	2009년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3/4분기		
재고량	5,395	4,838	4,140	3,355	3,355	-37.8	-14.4

주 : 재고량은 각 분기의 마지막 월 기준으로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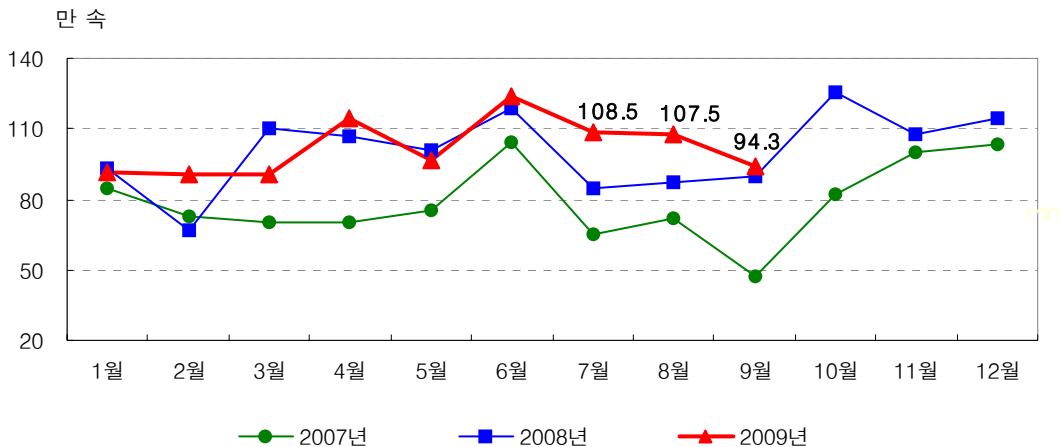
* 당 센터 조사가격

수출입동향

• 3/4분기 김 수출량, 작년과 비슷한 수준

금년 3/4분기의 김 수출량은 310만 속으로 2008년 동기간에 비해 18.6% 증가하였다. 제품별로 마른김의 수출량은 99만 속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하였으며, 조미김은 198만 속으로 2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과 미국으로의 수출량은 작년 동기간보다 증가하였으나, 대만 및 중국으로는 감소하였다.

< 김 월별 수출량 추이 >



주 : 마른김으로 환산(속당 260g)하였으며 냉장김 및 냉동김은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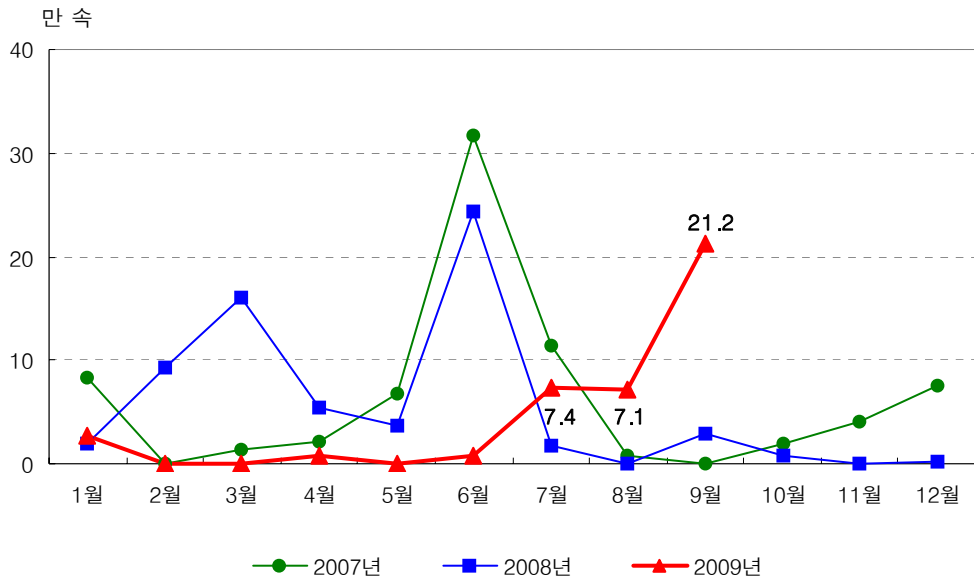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 3/4분기 김 수입량, 작년 동기 대비 95% 감소

3/4분기 김 수입량은 작년 동기 대비 675.2% 증가한 35만 8,000여 속을 기록하였으며, 대부분 중국산 마른김과 기타김이었다.

한편 9월까지의 누적 수입량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38.7% 감소한 40만 1,000여 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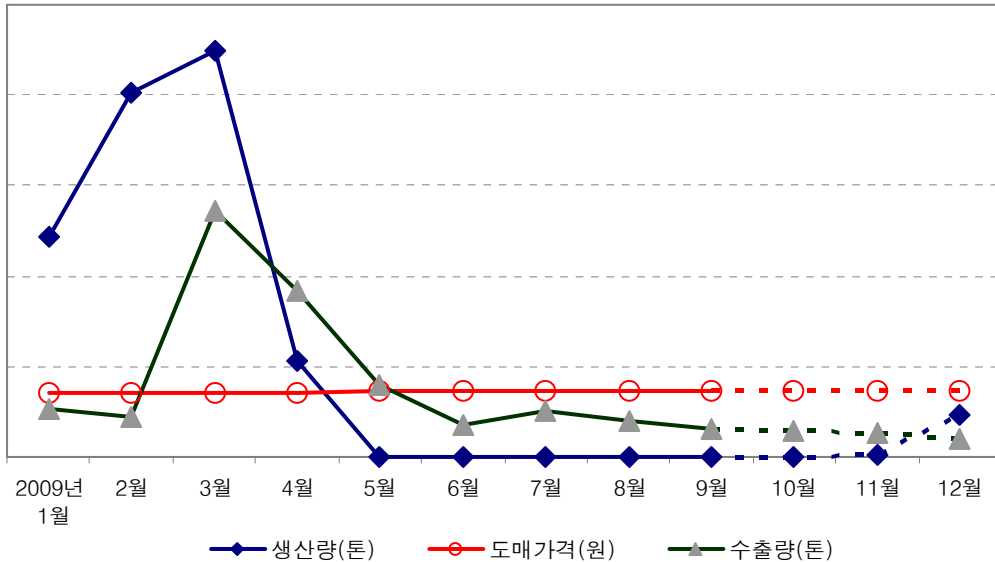
< 김 월별 수입량 추이 >



주 : 마른김으로 환산(속당 260g)하였으며 냉장김 및 냉동김은 제외됨

자료 : 관세청,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2. 미역



수급전망

- ▶ 표본 양식어가 설문조사 결과, 2010년산 식용 미역 양성 시설은 2009년산 대비 5%, 전복 먹이용은 1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작년 어기 초 고수온 피해로 인해 금년에는 시설 설치시기를 다소 늦추는 등의 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건들을 고려할 때, 2010년산 미역 생산량은 2009년산 대비 10% 이상 많은 약 40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미역의 경우, 수요와 도매가격의 변동이 적은 특성을 고려하면, 도매가격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동향

- 2010년산 미역 시설 의향 줄 수, 2009년산보다 10% 정도 많을 듯

당 센터 표본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009년 9월)한 결과, 2010년산 미역 시설 의향 줄 수는 2009년산보다 9.5% 증가하여 약 43만 8,000줄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 보면 식용 미역 양성 시설은 약 23만 5,000줄로 2009년산 대비 5.3%, 전복 먹이용은 약 20만 3,000줄로 14.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 시설 의향 줄 수,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

미역 시설 의향 줄 수를 지역별로 보면, 부산지역에서는 2009년산 시설이 어기초 고수온으로 상당수 철거되었고, 작황도 부진했기 때문에 2010년산 시설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남지역의 경우, 식용 미역 시설은 작년산과 동일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복 먹이용의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5% 정도 시설을 늘릴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울산에서는 원자력발전소 피해 보상으로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산 산지별 미역 시설의향 줄 수 >

(단위 : 줄, %)

구분			전국	전남	부산	울산	기타
2010년산 시설의향	9월	합계	437,831 (9.5)	382,200 (7.3)	40,922 (50.1)	7,847 (-20.8)	6,862 (2.6)
		식용	234,542 (5.3)	178,911 (0.0)	40,922	7,847	6,862
	조사	전복 먹이용	203,289 (14.8)	203,289 (14.8)	-	-	-
		합계	399,979	356,123	27,263	9,908	6,685
2009년산 시설량	식용		222,833	178,977	27,263	9,908	6,685
	전복 먹이용		177,146	177,146	-	-	-

주 : 1) 2009년산은 실제 시설량, 2010년산은 2009년 9월에 실시한 시설 의향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2) 기타 지역은 경남, 경북, 충남 등을 포함

3) 괄호 안은 지역별 2009년산 대비 증감률임

* 당 센터 추정치

• 2010년산 미역 종묘 생산량, 2009년산 대비 12% 증가

2010년산 미역 종묘 생산 추정량은 약 28만 9,000틀로 2009년산보다 1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묘 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종묘업체들은 전복 먹이용 미역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종묘 생산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종묘업체들은 식용 시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생산량을 늘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 2010년산 미역 종묘 생산 추정량 >

(단위 : 틀, %)

구 분	전국	전남	충남	기타
2009년산(A)	257	118	117	22
2010년산(B)	289	126	135	27
증감률(B/A)	12.4	6.5	15.5	25.0

* 당 센터 추정치

• 양성시설 설치, 대체로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할 듯

표본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2010년산 미역 양성시설 설치시기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대체로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기산 미역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의 64.6%가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작년보다 늦어질 것’과 ‘빨라질 것’은 각각 25.0%, 10.4%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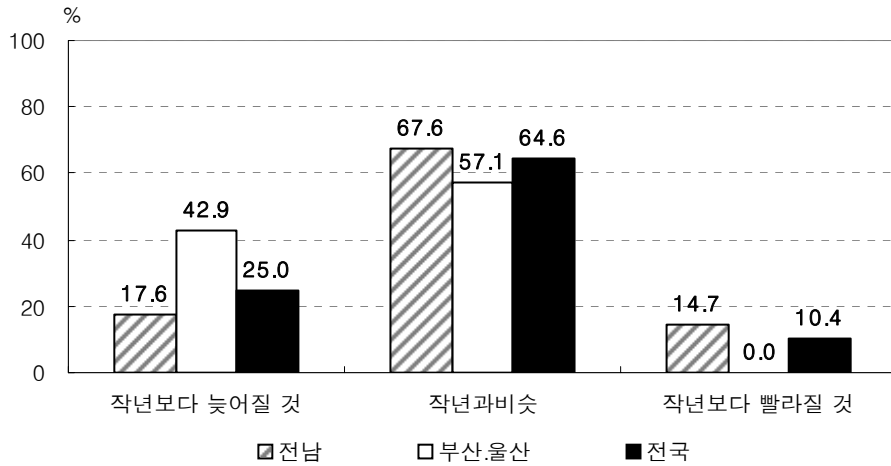
한편 만기산의 경우, 조사 대상의 83.3%가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늦어지거나 빨라진다는 응답은 각각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 지역의 경우 조기산은 작년보다 다소 늦어진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작년에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만기산은 지역 구분 없이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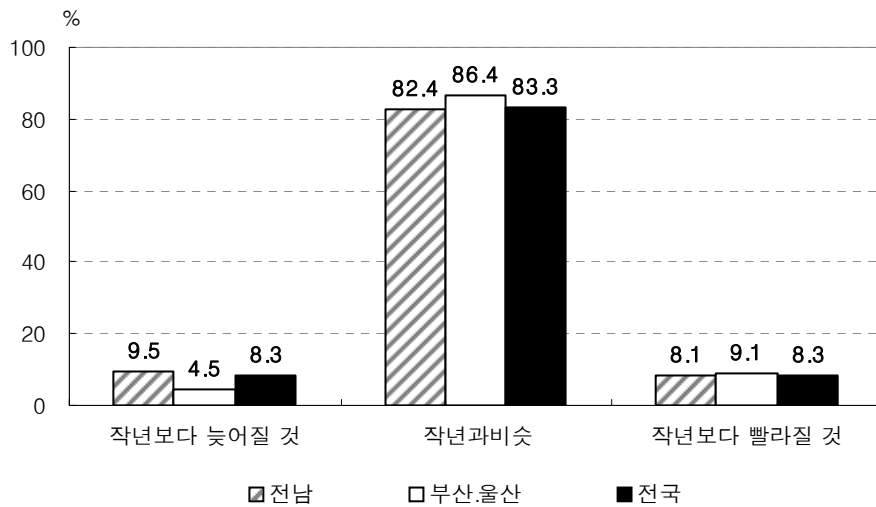


< 지역별 2010년산 시설 설치 시작 시기 >

- 조기산 -



- 만기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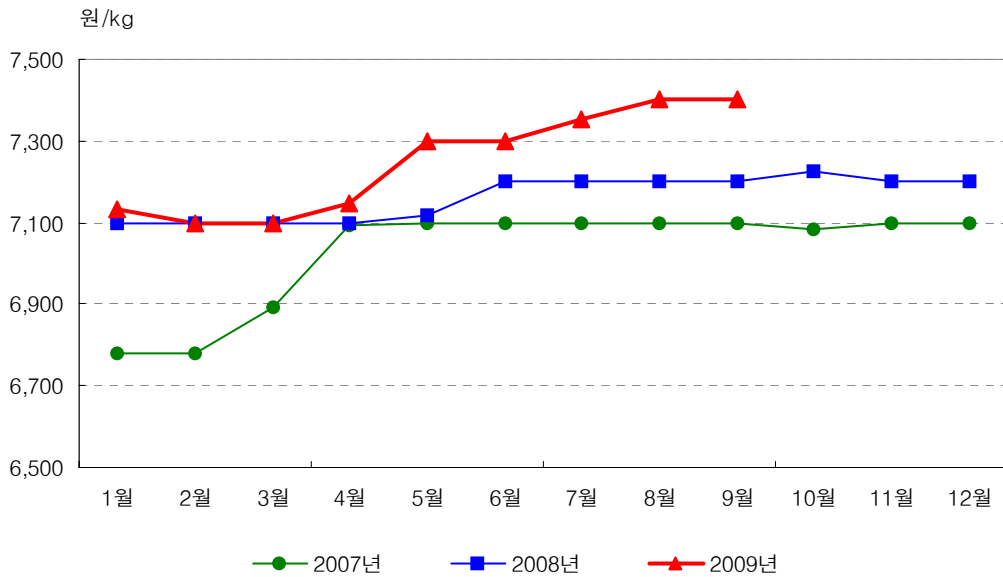
주 : 1) '작년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답한 어가의 경우, 평균 10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조사되었음
 2) 조기산은 주로 '9월 중순 ~ 10월 하순', 만기산은 '10월 상순 ~ 11월 하순'에 설치를 시작함
 * 당 센터 표본어가 조사 결과

가격동향

• 3/4분기 도매가격, 작년 보다 상승

3/4분기 마른실미역(上品)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7,384원으로 작년보다 2.6% 높았으나 2전 분기보다는 1.9% 상승하였다. 작년에 소금 가격이 폭등하는 등 미역 가공 비용이 올랐으나 2국내산 미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지만 2009년산 미역의 공급이 감소하면서 산지의 미역가격이 증가했다. 산지가격의 추세에 따라 도매가격도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마른실미역(上品)의 월별 도매가격 추이 >



주 : 마른실미역(上品)은 간(염장)미역을 2차 가공하여 열풍 건조한 제품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 소비자가격, 작년 대비 높은 수준

마른실미역의 3/4분기 평균 소비자가격은 10,460원이었으며, 9월 가격이 전월보다 0.8%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전월 대비 3.4%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나머지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 마른실미역(上品)의 소비자가격 동향 >

(단위 : 원/kg, %)

구 분	2009년		
	8월	9월	평균
마른실미역	10,420	10,500	10,460

* 당 센터 조사가격

※ 2009년 8월부터 마른실미역의 소비자 가격 조사는 전국 5대 재래시장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수출입동향

- 3/4분기 미역 수출량, 작년 동기 대비 16% 감소

미역 수출이 3월에 집중됨에 따라 3/4분기 미역 수출량은 지난 분기보다 크게 감소한 8,500여 톤을 기록하였다. 이 양은 작년 동기보다 15.6% 낮은 수준으로써 2009년 미역 생산이 작년보다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미역 수입량은 작년 동기 대비 14.8%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여 중국에 위탁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 미역 수출입 동향(원초 기준) >

(단위 :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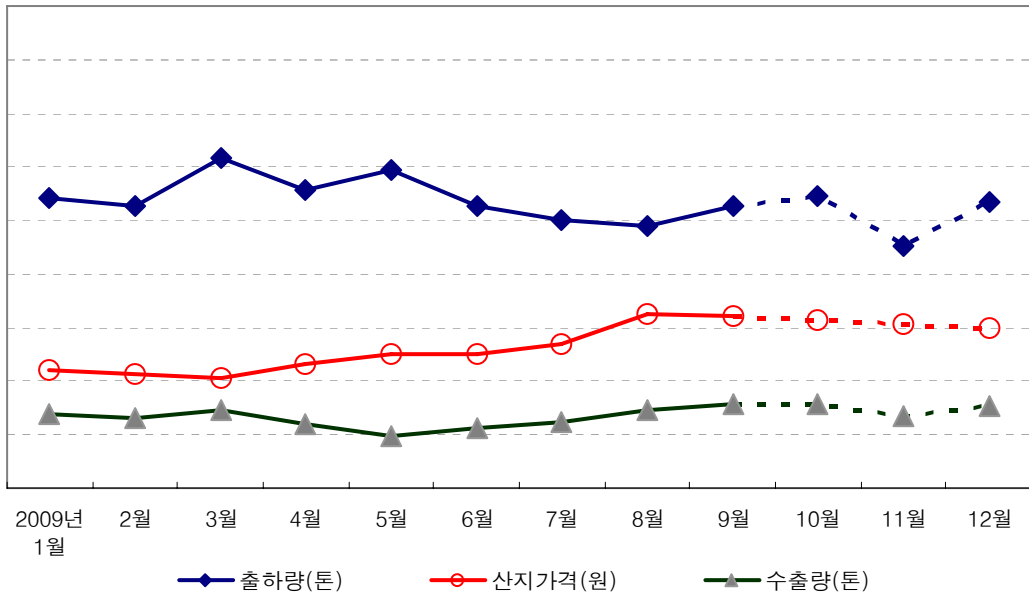
구 분	2009년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합계		
수출량	20,942	3,501	2,849	2,133	8,482	-59.5	-15.6
수입량	5,819	1,309	818	2,124	4,251	-26.9	-14.8

주 : 1) 원초 기준으로 환산하였으며, 마른미역은 25배, 간(염장) 및 냉장은 5배의 환산율을 적용함

2) 9월은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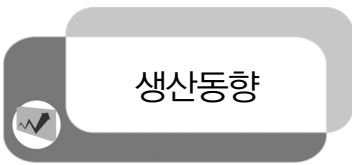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3. 넙치



수급전망

- ▶ 4/4분기 생산량은 2008년 동기보다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동안 높은 가격이 유지되어 공급 증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양성물량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 4/4분기 넙치 산지가격은 출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요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여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 한편 4/4분기 넙치 수출량은 연말을 맞아 일본 내의 활넙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3/4분기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3/4분기 넙치 생산량, 작년 동기 대비 6% 증가

3/4분기 활넙치 생산량은 지난 분기 대비 9.6% 감소한 1만 1,375톤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 양은 작년 동기보다는 6.0%가 많은 수준인데, 이는 수출이 증가하였고 활어 수입 감소에 따라 넙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월별로는 7월과 8월 생산량은 작년 동월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9월에는 작년 동월보다 적은 양이 출하되었다. 이는 중·대형어 출하가능물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산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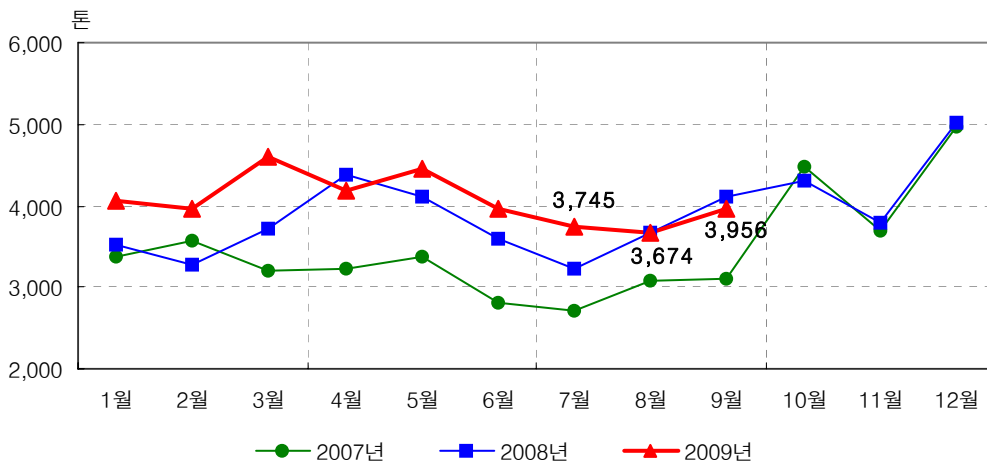
< 활넙치 분기별 생산량 동향 >

(단위 : 톤, %)

구분	2009년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소계		
생산량	12,581	3,745	3,674	3,956	11,375	-9.6	6.0

* 당 센터 추정치

< 넙치 생산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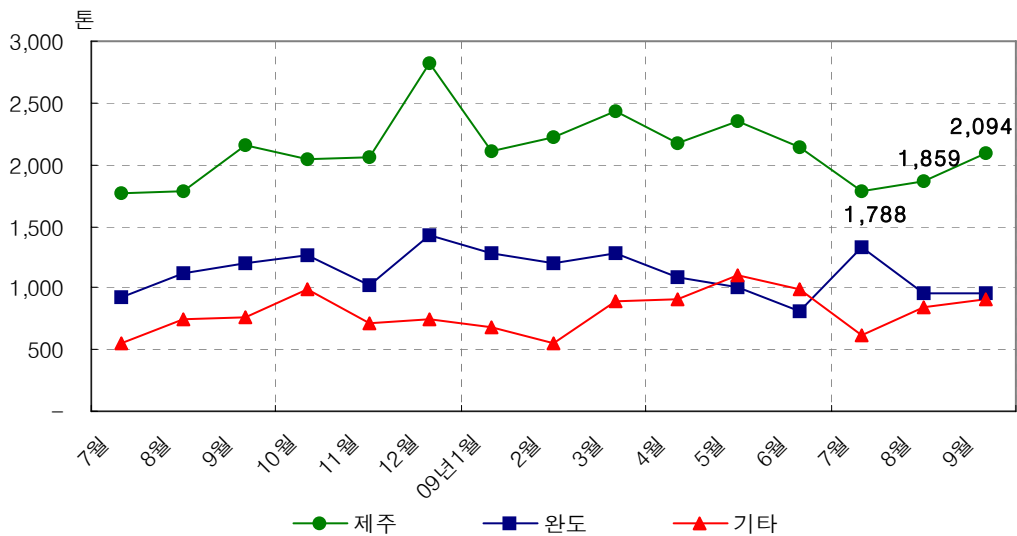


• 3/4분기 지역별 생산량, 제주와 기타지역 증가

3/4분기 지역별 생산량을 보면 완도지역은 지난 분기보다 증가한 반면, 제주와 기타지역은 감소하였다. 이는 7월 제주지역 출하 자체로 매수세가 완도지역으로 이동하여 이 지역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작년 동기간 대비 생산량을 살펴볼 때, 제주와 완도지역은 비슷한 반면, 기타지역은 증가하였다.

< 넙치 월별·지역별 생산량 추이 >



* 당 센터 추정치

• 3/4분기 크기별 생산량, 소형어·대형어 생산량 증가

3/4분기 크기별 생산량을 보면, 지난 분기에 이어 소형어와 대형어 출하는 증가하였으나 중형어는 감소하였다. 이는 중형어 양성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소형어와 대형어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는 소형어와 중형어 출하가 감소하였다. 소형어의 출하 감소는 대체어종인 자연산 전어 생산이 원활하여 이 크기의 수요가 작년에 비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넙치 크기별 출하동향 >

(단위 : 톤, %)

구분	2009년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소계		
합계	12,581	3,745	3,674	3,956	11,375	-9.6	3.3
500g 미만	649	76	414	348	838	29.1	-33.2
500g~1kg	5,182	1,599	1,471	489	3,559	-31.3	-28.8
1kg 이상	6,750	2,070	1,789	3,119	6,978	3.4	46.6

* 당 센터 추정치

• 9월 양성물량, 작년 동월 대비 3% 감소

9월말 기준 양성물량은 7,900여만 마리로 작년 동월보다 3% 가량 적었다. 크기별로는 250g 미만의 크기는 폐사에 따른 부족분을 9월 들어 추가로 입식하면서 작년 동월보다 44.1% 증가한 반면, 500g~1kg 크기는 8월에 이어 작년 동월보다 적은 상태가 지속되었다.

한편 500g 이상 크기의 중·대형어 양성량은 6월 말보다 소폭 증가하여 우려되었던 물량부족현상 심화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넙치 월별 · 크기별 양성물량의 변화 >

(단위 : 만 마리, %)

구 분	2008년	2009년				6월말 대비	작년 동월 대비
	9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합계	7,695	9,406	9,687	8,411	7,944	-15.5	3.2
250g 미만	2,573	6,331	5,994	4,436	3,708	-41.4	44.1
250~500g	2,140	1,059	1,959	2,489	2,102	98.5	-1.8
500g~1kg	2,226	1,456	1,178	916	1,456	0.0	-34.6
1kg 이상	756	560	556	570	678	21.1	-10.3

* 당 센터 추정치

- 3/4분기 입식량, 작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

3/4분기 입식량은 작년 동기 대비 171.3% 증가한 1,530여만 마리였다. 이 양은 양식넙치 주 입식기인 2/4분기에 비해서는 65.9% 감소한 것이지만 계속되는 치어의 많은 폐사로 인해 입식 물량이 부족해진 어가에서 3/4분기 동안 추가 입식을 실시함에 따라 작년에 비해서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3/4분기 입식 추이 >

(단위 : 만 마리, %)

구분	2009년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소계		
입식량	4,480	680	213	637	1,530	-65.9	171.3

* 당 센터 추정치

- 3/4기 양성상태, 작년보다 저조

3/4분기 양성상태는 2/4분기 및 작년 동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이는 질병 발생 등으로 폐사가 많은 가운데 특히 치어의 폐사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 일부지역의 경우, 하루 수온의 편차가 8℃ 이상으로 벌어지는 등 환경이 불안정하여 양성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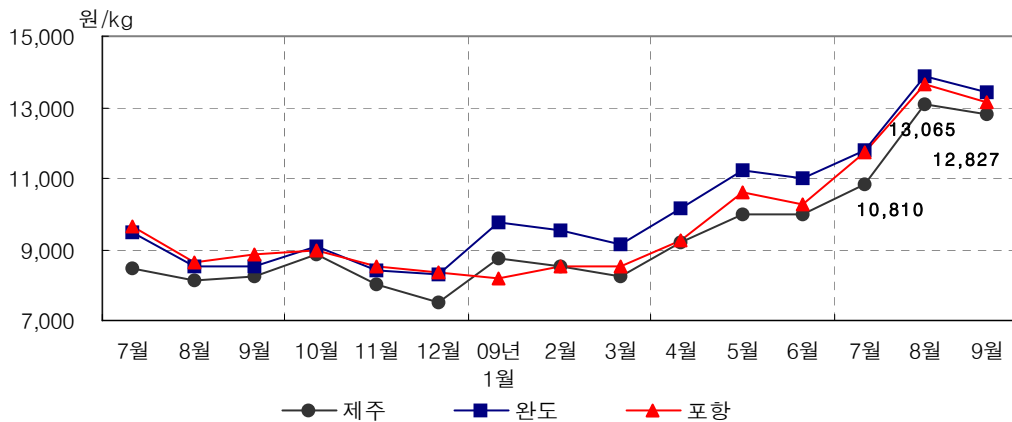


가격동향

- 2009년 3/4기 산지가격, 작년 동기보다 높은 상태 지속

넙치 산지가격은 연초부터의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9월 들어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 분기 대비 20% 이상 상승하였으며, 작년 동기보다는 40% 이상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다.

< 넙치 월별 · 지역별 산지가격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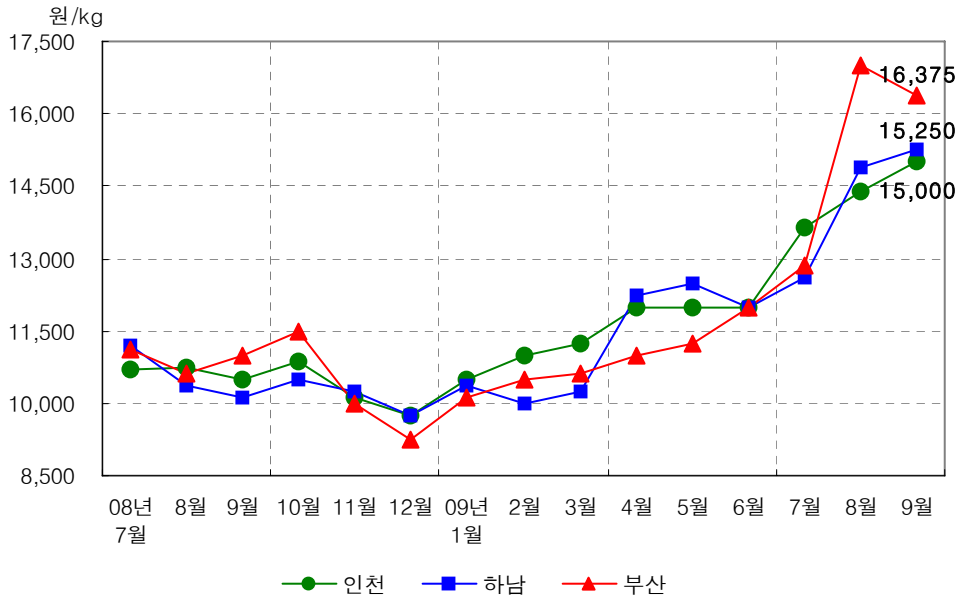


주 : 1) 마리당 1kg 크기의 가격, 중량은 $\pm 50g$, 가격은 ± 500 원/kg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음
 2) 2008년 12월 포항지역은 동 크기의 위판실적이 없어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것을 보정하였음
 자료 : 각 지역 해수어류양식수협(제주, 완도, 포항)

- 도매가격, 전 분기 대비 23% 상승

3/4분기 도매가격은 출하가능물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활어 수요가 늘면서 지난 분기 대비 23.4% 상승한 kg당 14,667원이었다. 한편 가격 수준이 낮았던 작년 동기 간에 비해서도 37.0% 높게 나타났다. 월별로는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격이 9월에는 가을철 전어 및 다른 어종의 수요가 다소 늘면서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넙치의 월별 · 시장별 도매가격 추이 >



주 : 900g~1.0kg 크기의 kg당 가격임

자료 : 각 시장별 조사가격

시장별로 살펴보면 모든 시장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했으며, 이 중 부산시장의 상승폭이 35.0%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수도권시장에 비해 부산시장에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

< 넙치 월별 도매가격 동향 >

(단위 : 원/kg, %)

구분	2009년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평균		
인천활어도매업협동조합	12,000	13,625	14,375	15,000	14,333	19.4	34.6
하남활어유통조합	12,250	12,625	14,875	15,250	14,250	16.3	34.9
부산활어도매업협동조합	11,417	12,875	17,000	16,375	15,417	35.0	41.3

주 : 900g~1.0kg 크기의 kg당 가격임

자료 : 각 시장별 조사가격

• 대형마트 소비자가격, 전 분기 대비 7% 상승

3/4분기 대형마트의 소비자가격은 지난 분기 대비 6.5% 상승한 kg당 28,745원이었는데, 이는 대형마트에서 산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할인 행사 횟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반면 바다마트 소비자가격은 전 분기와 동일한 kg당 29,002원이었으며,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변화가 없었다.

< 넙치 월별 소비자가격 동향 >

(단위 : 원/kg, %)

구분	2009년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평균		
대형마트 ¹⁾	26,978	28,665	28,605	28,965	28,745	6.5	-1.7
바다마트(바다회상) ²⁾	29,002	29,002	28,998	29,005	29,002	0.0	0.0

주 : 1) 대형마트의 횡감 1kg의 주별 평균 소비자가격임

2) 수협중앙회의 활넙치 평균 가격(부속 일반음식점으로 부가세 포함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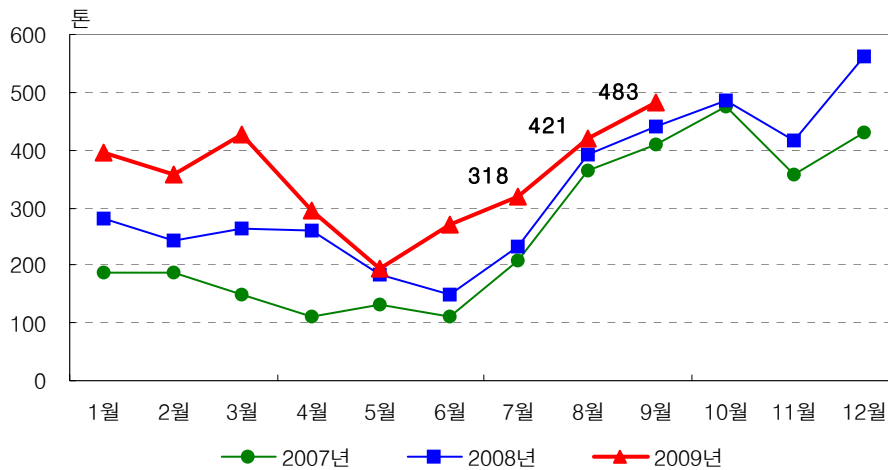
수출동향

• 3/4분기 활넉치 수출량, 전 분기 대비 61% 증가

3/4분기 활넉치 수출량은 지난 분기 대비 61.0% 증가한 1,222톤이었으며,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14.8% 많은 수준이었다. 이는 작년에 비해 환율이 높은 데다 일본의 8월 명절(오봉 ; お盆) 및 휴가철로 인해 활넉치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월별로는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월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483톤이었다. 이는 당월에 연휴(silver week ; 敬老・國民・秋分の 날)가 겹치면서 활넉치 수요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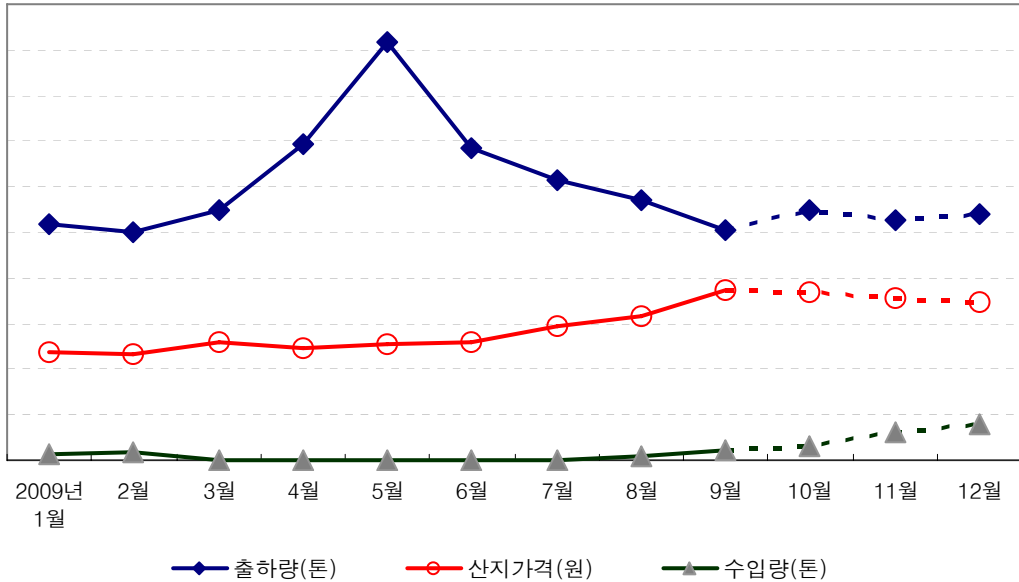
< 활넉치 수출량 추이 >



주 : 2009년은 잠정치임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4. 조피볼락



수급전망

- ▶ 9월 하순부터 고수온이 해소되고 양성상태가 양호함에 따라 출하가능물량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5월부터 계속 감소해 오던 생산량은 9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이런 추세는 4/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 4/4분기 조피볼락 산지가격은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 한편 4/4분기 조피볼락의 수입량은 3/4분기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가격이 높게 형성된 가운데 수온이 하락하고, 원화 또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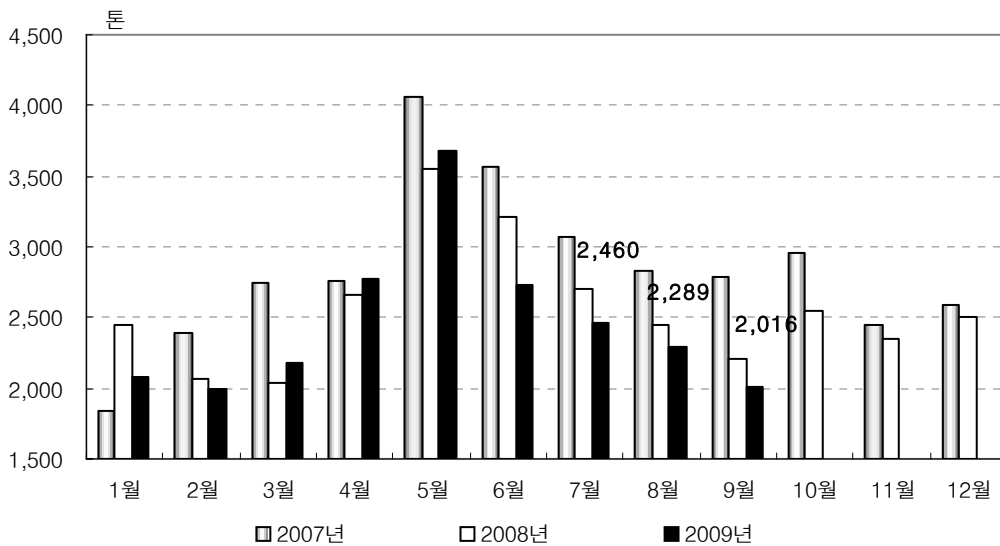
생산동향

• 2009년 3/4분기 생산량, 작년보다 8% 감소

3/4분기 조피볼락 생산량은 지난 분기에 비해 26.3%, 작년 동기에 비해 7.9% 감소한 6,765톤이었다. 월별로는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는 올해 출하대상이 되는 2007년의 입식물량이 예년에 비해 많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고수온으로 인해 출하도 부진했기 때문이다.

한편 9월까지의 생산량은 2만 2,196톤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4.8% 적었다.

< 조피볼락 월별 생산량 추이 >



* 당 센터 추정치

- 3/4분기 크기별 생산량, 400g 미만 크기에서 작년보다 크게 늘어

2009년 3/4분기 크기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400g 미만 크기에서 작년보다 115.7%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에 비해서도 153.1% 증가한 것으로서 500g 이상 크기의 양성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작은 크기의 출하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년과 비교해 양성물량이 많이 부족했던 500~600g 크기에서는 작년보다 41.9% 감소한 1,276톤이 출하되었으며, 600g 이상 크기는 82.5% 감소한 199톤이 출하되었다.

< 조피볼락 월별 크기별 생산량 동향 >

(단위 : 톤, %)

구분	2009년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소계		
합계	9,178	2,460	2,289	2,016	6,765	-26.3	-7.9
400g 미만	901	654	778	848	2,280	153.1	115.7
400~500g	3,716	1,187	970	853	3,010	-19.0	1.76
500~600g	3,060	530	489	257	1,276	-58.3	-41.9
600g 이상	1,501	89	52	58	199	-86.7	-82.5

* 당 센터 추정치

- 지역별 생산량, 경남은 감소, 전남 및 기타지역은 증가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은 지난 분기 및 작년 동기에 비해 감소한 반면, 전남 및 기타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의 출하가능물량이 많이 부족하여 전남 및 기타지역에서 출하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 조피볼락 월별 지역별 생산량 동향 >

(단위 : 톤, %)

구분	2009년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소계		
합계	9,178	2,460	2,289	2,016	6,765	-26.3	-7.9
경남	6,588	1,090	808	480	2,378	-63.9	-48.0
전남	1,441	581	515	1,373	2,469	71.3	29.5
기타	1,149	789	966	163	1,918	66.9	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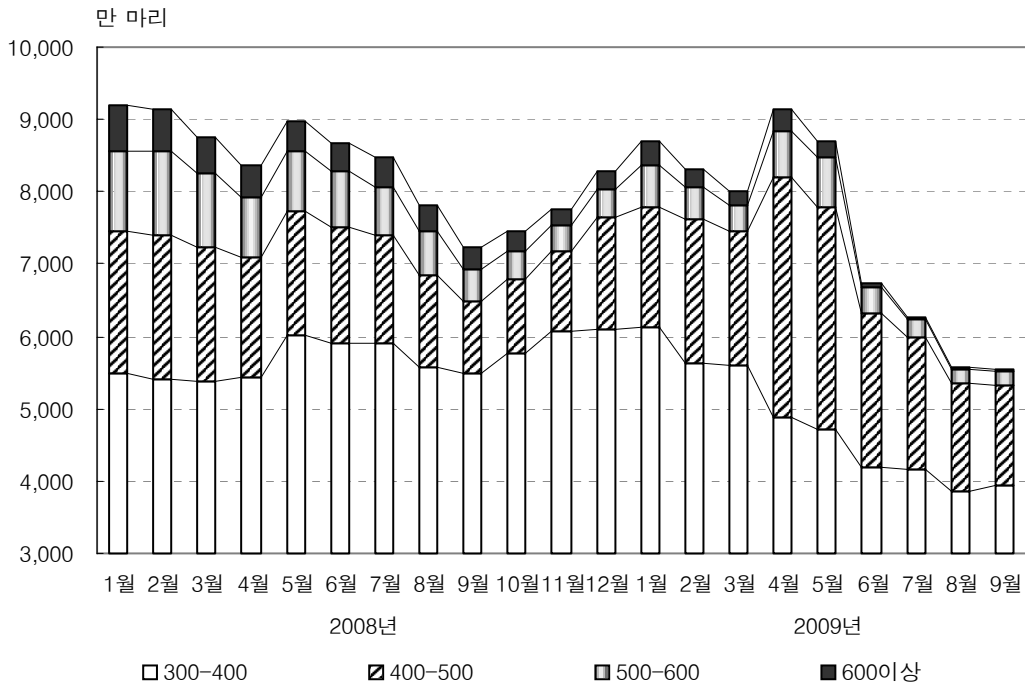
* 당 센터 추정치

• 2009년 9월 양성물량, 작년 동월 대비 16% 증가

9월 말 현재 전국의 조피볼락 총 양성물량은 작년 동월 대비 15.9% 증가한 3억 7,452만 마리로 추정되었다.

크기별로 살펴보면, 300g 미만 크기는 입식량이 작년보다 증가하면서 작년 동월 보다 25% 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0~600g 크기의 양성물량은 작년 동월에 비해 54.7%, 600g 이상 크기가 97.1% 감소하여 대형어의 양성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 출하가능 물량 추이 >



* 당 센터 추정치

2009년 6월 말과 비교해 보면, 400~500g 크기를 제외한 모든 크기에서 감소하였는데, 크기가 클수록 감소폭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올해 출하대상이 되는 2007년 입식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부족했기 때문에 출하가능물량이 부족한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양성상태가 양호하여 작년 입식한 물량의 성장이 다소 빨라 10월부터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

< 조피볼락의 크기별 양성물량 동향 >

(단위 : 만 마리, %)

구분	2009년				6월말 대비	작년 동월 대비
	6월	7월	8월	9월		
합계	38,985	44,985	41,776	37,452	-3.9	15.9
300g 미만	32,258	38,722	36,197	31,375	-2.7	25.0
400~500g	4,196	4,152	3,866	4,463	6.4	-18.7
400~500g	2,113	1,844	1,490	1,405	-33.5	40.2
500~600g	374	250	199	200	-46.5	-54.7
600g 이상	44	17	24	8	-80.8	-97.1

* 당 센터 추정치

- 2009년 3/4분기 양성상태는 대체로 양호, 일부지역에서 폐사 발생

올해 3/4분기의 양성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조에 의한 피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수온의 기간도 짧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남지역에서는 한 때 천수만 물방류와 고수온의 영향이 겹치면서 일부지역에서 폐사가 급증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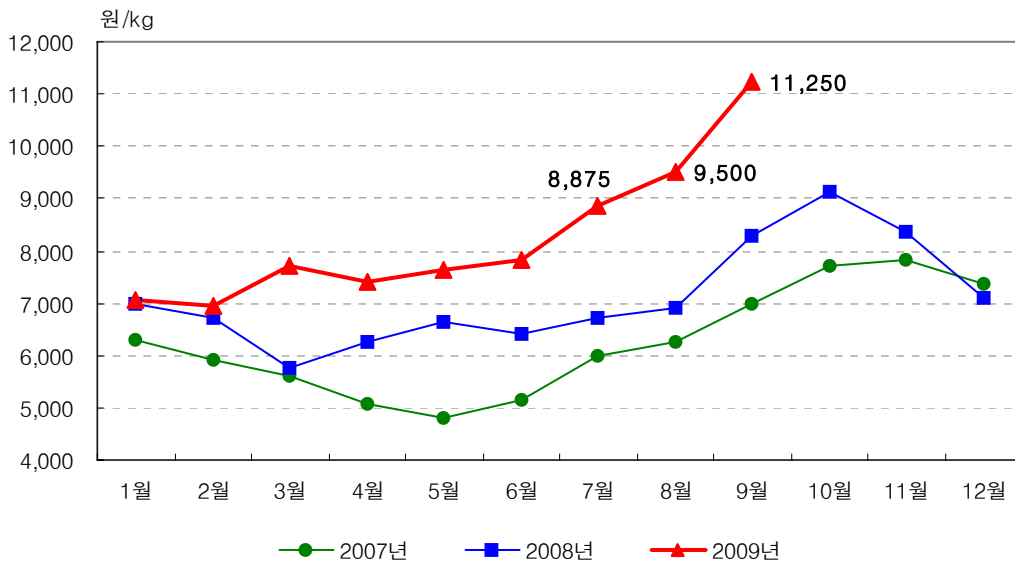
가격동향

- 2009년 3/4분기 산지가격, 작년 및 지난 분기 대비 크게 상승

3/4분기 500g 크기의 통영 산지가격은 4월부터 계속 상승하여 9월에는 11,250원을 기록했다. 이는 예년에 비해 조피볼락의 출하가능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출하가능물량 부족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서 소형어의 가격은 한 달 사이에 30% 이상 증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작년 동 분기 대비 통영지역의 500g 크기의 산지가격은 30%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월별 산지가격 추이 >



주 : 통영의 500g 크기의 kg당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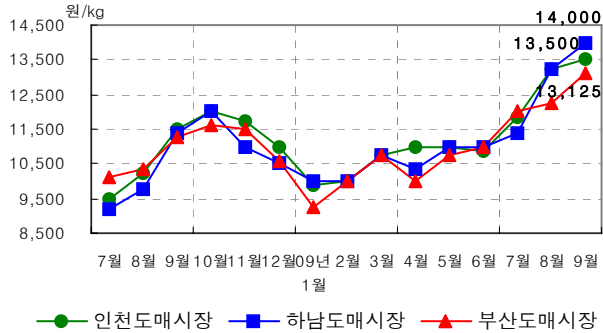
자료 :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통영지소

• 도매가격, 지난 분기 대비 18% 상승

3/4분기의 500~600g 크기 도매가격은 전 분기 대비 18.2% 상승하여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20% 이상 높았다.

월별로는 4월 이후 꾸준히 상승한 가격이 9월까지 이어져 kg당 13,000원 대를 유지했다. 이는 시장 공급이 줄어든 데다 수입량도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조피볼락의 월별 도매가격 추이 >



주 : 500~600g 크기의 kg당 가격
자료 : 각 시장별 조사가격

< 조피볼락의 월별 도매가격 동향 >

(단위 : 원/kg, %)

구분	2009년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평균		
인천활어도매업 협동조합	10,958	11,875	13,250	13,500	12,875	17.5	23.6
하남활어 유통조합	10,792	11,375	13,250	14,000	12,875	19.3	27.4
부산활어도매업 협동조합	10,583	12,000	12,250	13,125	12,458	17.7	17.8

주 : 500~600g 크기의 kg당 가격임
자료 : 각 시장별 조사가격

• 3/4분기 대형마트 소비자가격, 전 분기 대비 6% 상승

3/4분기의 대형마트 소비자가격은 kg당 28,680원으로 전 분기 대비 6.1% 상승했으나, 바다마트 소비자가격은 전 분기와 비슷한 kg당 평균 30,993원이었다. 한편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대형마트와 바다마트의 소비자가격 모두 8% 이상 높았다.

< 조피볼락의 월별 소비자가격 동향 >

(단위 : 원/kg, %)

구분	2009년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평균		
대형마트 ¹⁾	27,040	29,500	28,540	28,000	28,680	6.1	8.8
바다마트 (바다회상) ²⁾	31,011	30,978	30,995	31,007	30,993	-0.1	8.1

주 : 1) 대형마트의 횡감 1kg의 주별 평균 소비자가격임
2) 수협중앙회의 조피볼락 평균 가격임



수출입동향

- 3/4분기 조피볼락 수입량, 61톤

3/4분기 조피볼락 수입량은 전 분기 대비 대폭 증가한 61톤이 수입되었으며,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많은 수준이었다. 이는 국내 조피볼락 가격이 높게 형성된 가운데 국내 출하가능 물량도 예년에 비해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월별로는 8월부터 수입이 재개되면서 9월에는 8월에 비해 2배가량 많은 41톤이 수입되었는데, 이는 최근 3년 간 동월 내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 조피볼락의 수입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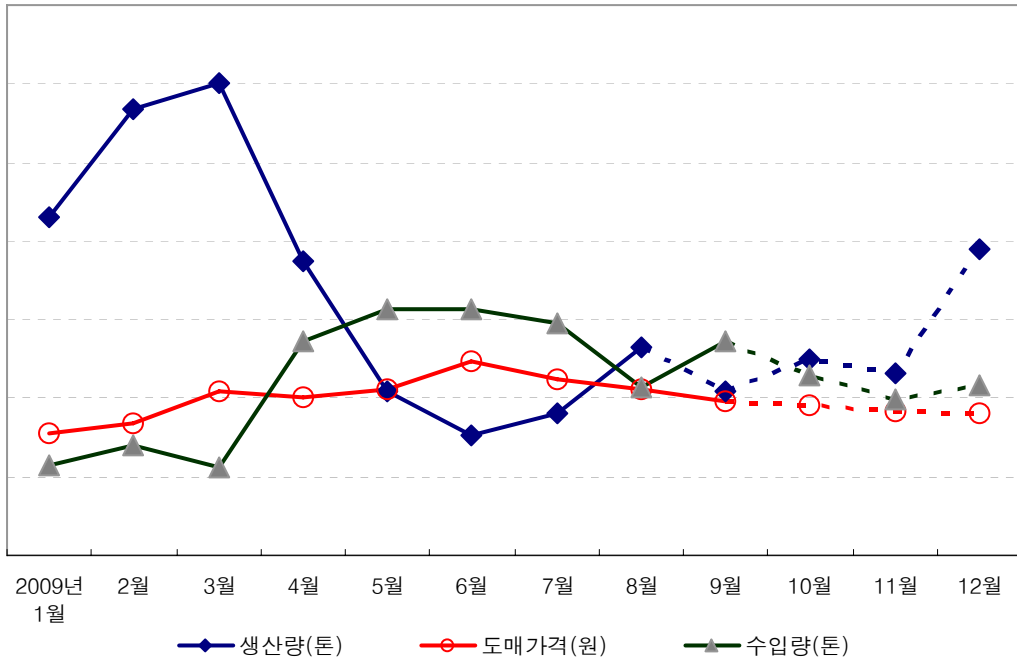
(단위 : 톤, 천 달러, %)

구분	2009년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소계		
수입량	1	-	20	41	61	6,935.5	632.4
수입액	46	-	129	260	389	753.5	631.8

주 : 2009년은 잠정치임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5. 참돔



수급전망

- ▶ 10월 이후 참돔 생산량은 3/4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고수온이 해소되어 출하가 원활해지고, 전반적으로 활어유통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 4/4분기 참돔 산지가격은 국내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 한편 4/4분기 참돔 수입량은 연말을 맞아 활어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활돔 생산량이 3/4분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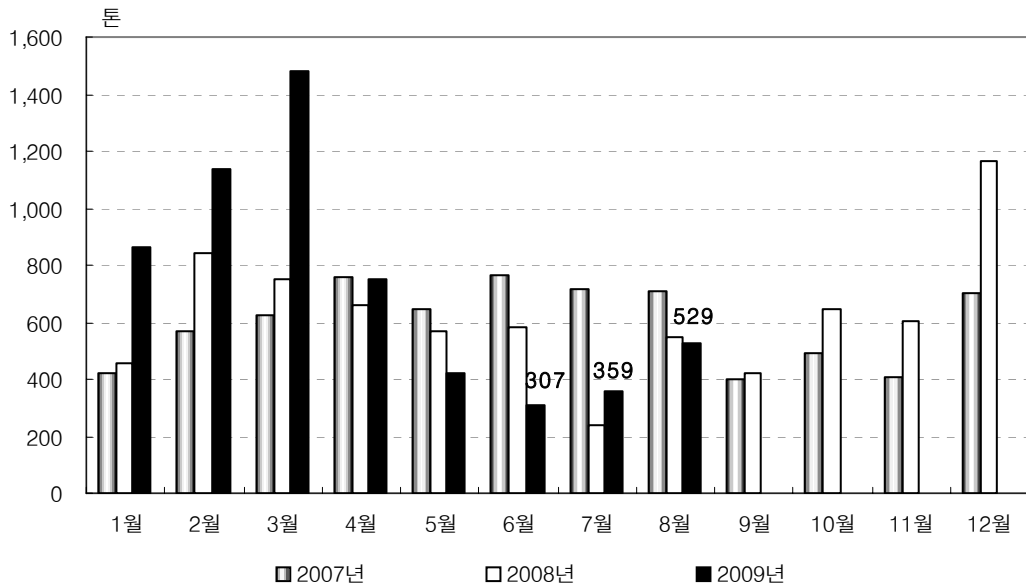


• 6~8월 생산량, 작년 동기 대비 13% 감소

양식 참돔의 6~8월까지의 생산량은 1,195톤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6월 307톤, 7월 359톤, 8월 529톤으로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늘었으며, 최근 2년과는 달리 8월에 생산이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1~8월까지의 생산량은 5,843톤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25.9% 많았다.

< 참돔 연도별 월별 생산량 추이 >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각 년도

• 2009년 6~8월 지역별 참돔 생산량, 전남 증가, 경남 및 기타지역 감소

2009년 6~8월 지역별 참돔 생산량은 전남지역에서는 증가한 반면, 경남 및 기타 지역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에서는 작년보다 365.4% 증가한 121톤이 출하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경남은 19.4% 감소한 1,074톤이 출하되었다.

< 참돔의 월별 지역별 생산량 동향 >

(단위 : 톤, %)

구분	2008년	2009년				작년 동기 대비
	6~8월	6월	7월	8월	소계	
합계	1,368	307	359	529	1,195	-12.6
전남	26	15	73	33	121	365.4
경남	1,333	292	286	496	1,074	-19.4
기타	9	0	0	0	0	-100.0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각 년도





• 3/4분기 산지가격, 일부지역 제외하고 전 분기 대비 상승

3/4분기의 산지가격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전 분기에 비해 강보합세를 보였으며,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육지수협 1kg 크기 참돔 평균 단가가 전 분기 대비 8.0% 상승한 kg당 9,000원으로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통영지소 800g 크기의 평균 단가는 3.8% 상승했다. 월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3/4분기 내내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했다.

< 참돔의 월별 산지가격 동향 >

(단위 : 원/kg, %)

구분			2009년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평균		
육지수협			8,333	9,000	9,000	9,000	9,000	8.0	17.4
서남해수 어류양식 수협	통영	800g	7,667	8,000	7,875	8,000	7,958	3.8	8.5
	지소	1kg	10,167	9,250	9,250	9,250	9,250	-9.0	4.7
	여수본소		9,000	9,000	8,500	8,500	8,667	-3.7	-1.5

주 : 통영은 거래단위별 kg당 가격, 여수와 육지는 kg당 평균 단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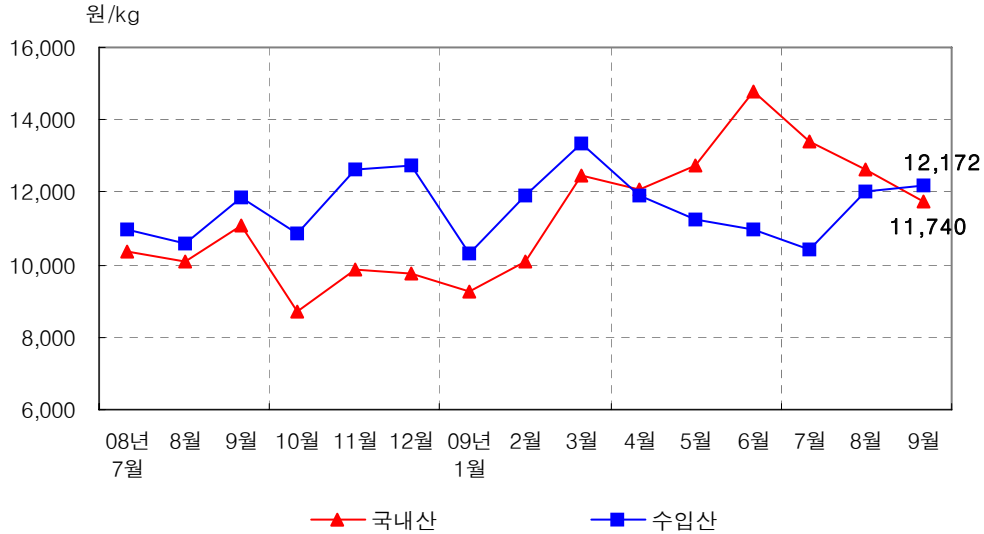
자료 : 각 수협

• 도매가격, 전 분기 대비 5% 하락

3/4분기 참돔 도매가격은 전 분기 대비 4.7% 하락한 kg당 12,578원이었다. 이는 전어 등 타 어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돔류 수요가 다소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국내산 및 수입산 활어 공급량이 적어 20% 가량 높은 수준을 보였다.

월별로 살펴보면 6월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9월에는 kg당 11,740원으로 4월 수준까지 떨어졌다.

< 참돔의 월별 도매가격 추이 >



주 : 월별 도매가격은 kg당 평균 경락단가임
자료 : 노량진시장

반면 수입산 참돔 도매가격은 7월 이후 지속적인 시장 공급 감소로 인해 전 분기 대비 1.5% 상승한 kg당 11,534원이었으며,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 대형마트 소비자가격, 전 분기 대비 상승

3/4분기 대형마트의 소비자가격은 전 분기 대비 4.6% 증가한 kg당 37,053원이었으며,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바다마트의 소비자가격은 kg당 33,984원으로 전 분기 및 작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 참돔 월별 소비자가격 동향 >

(단위 : 원/kg, %)

구분	2009년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6월	7월	8월	평균		
대형마트 ¹⁾	35,427	37,160	37,000	37,000	37,053	4.6	25.1
바다마트(바다회상) ²⁾	34,010	33,968	33,984	34,000	33,984	-0.1	-2.4

주 : 1) 대형마트의 횡감 1kg의 주별 평균 소비자가격임

2) 수협중앙회 잠실 본점의 활동 평균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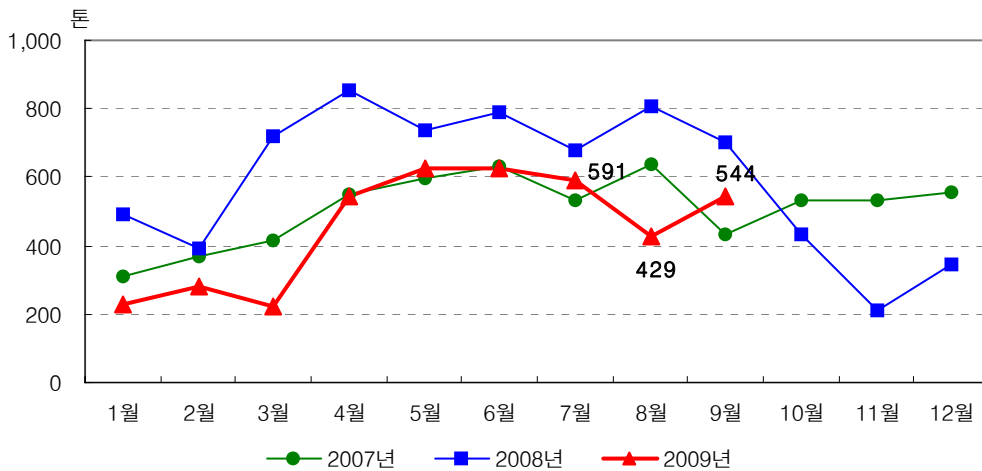
수출입동향

• 3/4분기 활참돔 수입량, 전 분기 대비 13% 감소

3/4분기 활참돔 수입량은 일본산 활돔 공급이 원활치 않아 지난 분기에 비해 12.8% 감소한 1,565톤이었으며, 이는 최근 3년 내 동기간 중 가장 적은 물량이었다. 한편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환율 등의 영향을 받아 28.3% 적은 수준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8월보다 9월에 수입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올해는 9월에 증가하여 540여 톤이 수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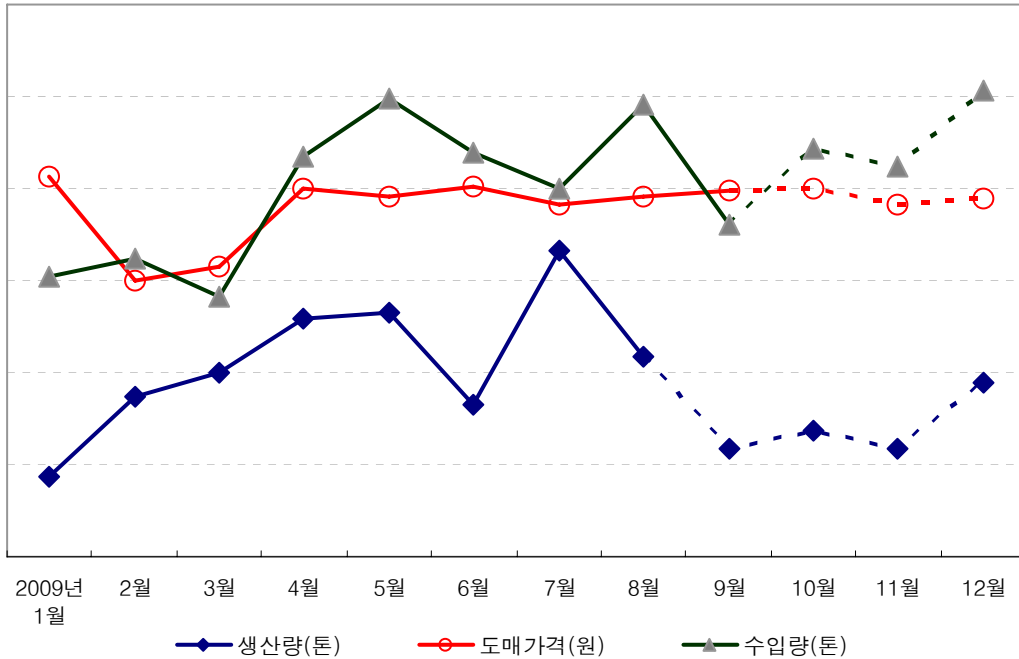
< 활돔의 월별 수입량 추이 >



주 : 2009년은 잠정치임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6. 농 어



수급전망

- ▶ 양식산 농어의 9~11월 생산량은 6~8월에 비해 감소하였다가, 연말에는 수요증가에 의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 4/4분기의 농어 산지가격은 연말에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4분기에 이어 강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 한편 4/4분기 농어 수입량은 3/4분기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연말을 맞아 활어 수요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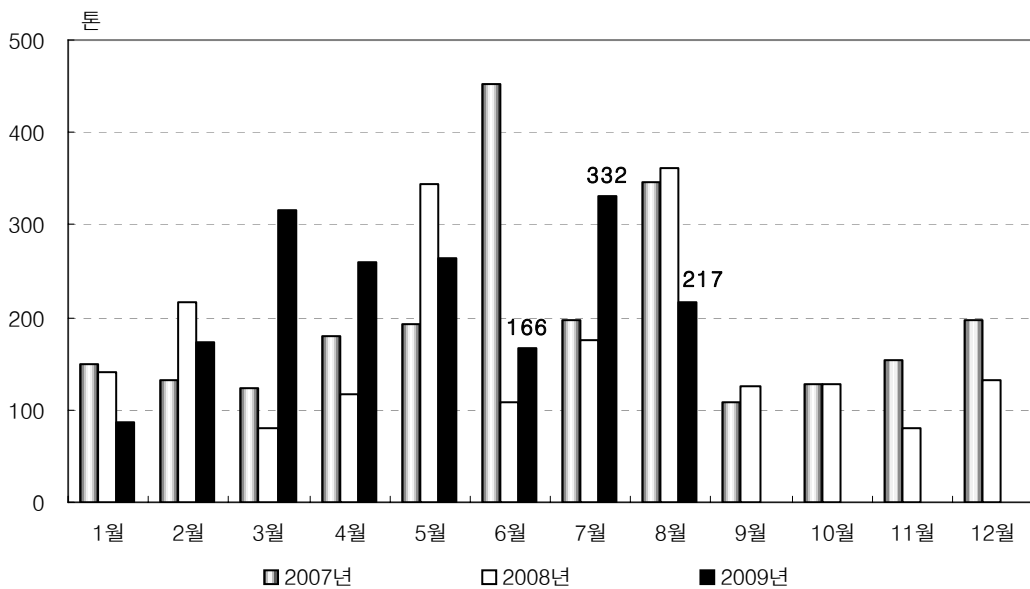
생산동향

• 6~8월 양식 농어 생산량, 작년 동기 대비 11% 증가

6~8월까지의 양식 농어 생산량은 작년 동기에 비해 10.9% 증가한 715톤이었다. 월별로는 6월에 166톤, 7월 332톤, 8월 217톤으로, 지난 2년간 8월에 출하가 집중된 것과 달리 올해는 7월에 출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8월까지의 누적 생산량은 1,816톤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7.6% 많았다.

< 농어 연도별 월별 생산량 추이 >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각 년도

• 지역별 생산량, 전남 증가, 경남 및 기타지역은 감소

지역별로는 작년 동기기간에 비해 전남이 173.2% 증가하여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경남 및 기타지역은 각각 12.4%, 6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의 월별 지역별 생산량 동향 >

(단위 : 톤, %)

구분	2008년	2009년				작년 동기 대비
	6~8월	6월	7월	8월	소계	
합계	645	166	332	217	715	10.9
전남	82	47	104	73	224	173.2
경남	558	119	228	142	489	-12.4
기타	5	0	0	2	2	-60.0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각 년도





• 3/4분기 산지가격, 전 분기 대비 상승

3/4분기의 농어 산지가격은 출하가능물량과 수입량이 많지 않아 지난 분기에 비해 상승했으며,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통영지소의 경우 3/4분기 내내 kg당 10,000원이었으며, 여수 본소는 kg당 10,083원으로 통영지소보다 다소 높게 형성했다.

< 농어의 월별 산지가격 동향 >

(단위 : 원/kg, %)

구분		2009년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평균		
하동수협		-	-	-	-	-	-	-
서남해수어류	통영지소	9,250	10,000	10,000	10,000	10,000	8.1	7.1
양식수협	여수본소	9,000	10,000	9,750	10,500	10,083	12.0	7.1

주 : 1) 하동수협은 4~9월까지 거래실적이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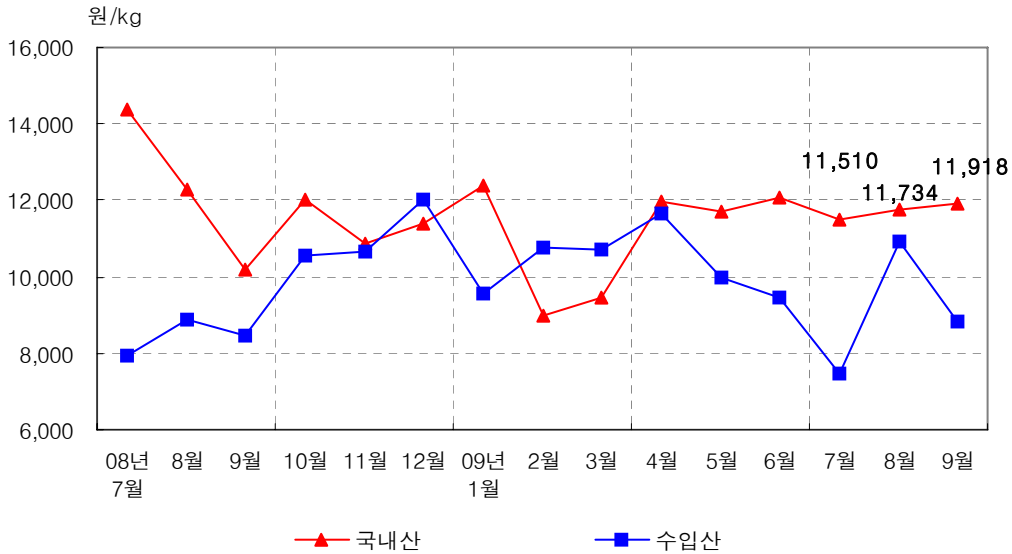
2) 통영은 1kg 크기별 거래가격, 여수와 하동은 kg당 평균단가임

자료 : 각 지역 수협

• 도매가격, 전 분기 대비 약보합세

3/4분기 국내산 농어 도매가격은 지난 분기에 비해 1.6% 하락한 kg당 11,721원이었으며,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월별로는 4월 이후 상승한 도매가격이 9월까지 kg당 11,000원 대를 유지하여, 작년 동기의 가격 하락과는 대조를 보였다.

< 농어의 월별 도매가격 동향 >



주 : 월별 도매가격은 kg당 평균 경락단가임
자료 : 노량진시장

반면 수입산은 시장 공급이 늘면서 전 동기 대비 12.4% 하락한 kg당 9,075원이었으나, 작년 동 분기에 비해서는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8% 가량 높은 수준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7월에는 시장 공급이 크게 늘면서 연중 최저치인 kg당 7,489원을 기록했으나, 그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6월 수준을 유지했다.

• 3/4분기 대형마트 소비자가격,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

3/4분기의 대형마트 소비자가격은 전 분기 대비 0.6% 상승한 kg당 평균 28,000원이었으나,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바다마트의 소비자가격은 전 분기와 비슷한 kg당 평균 32,971원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 농어의 월별 소비자가격 동향 >

(단위 : 원/kg, %)

구분	2009년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평균		
대형마트 ¹⁾	27,827	28,000	28,000	28,000	28,000	0.6	-0.7
바다마트(바다회상) ²⁾	32,992	32,955	33,021	32,938	32,971	-0.1	0.5

주 : 1) 대형마트의 횡감 1kg의 주별 평균 소비자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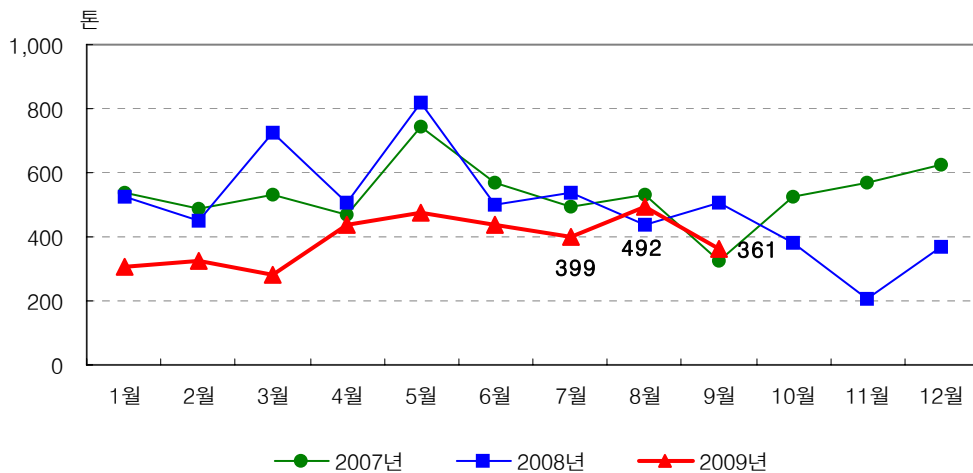
2) 수협중앙회의 농어 평균 가격임

수출입동향

• 활농어 수입량, 전 분기 대비 7% 감소

3/4분기의 활농어 수입량은 전 분기 대비 7.3% 감소한 1,251톤이었으며,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15.4% 적은 수준이었다. 월별로는 4월 이후 꾸준히 일정량이 수입되었으나, 8월에는 여름철 활어 수요가 다소 증가하면서 약 500톤이 수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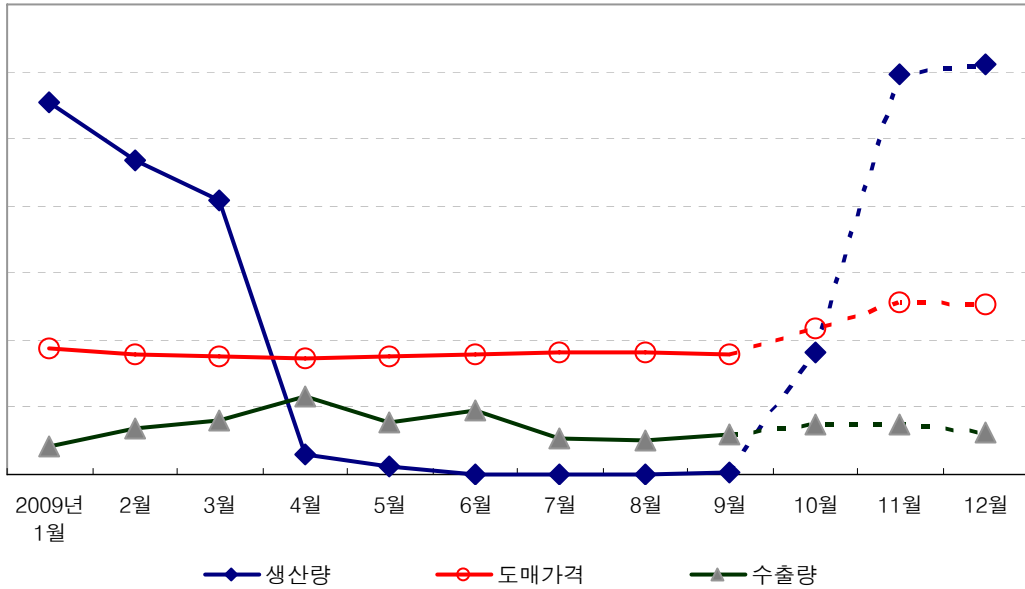
< 활농어의 월별 수입량 추이 >



주 : 2009년은 잠정치임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7. 굴



수급전망

- ▶ 지난 어기 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시설량을 늘린 어가가 많았다. 따라서 2010년산 굴 생산량은 2009년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 4/4분기 굴 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낮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공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 수출량은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알굴 수출이 개시되고, 건조굴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난 분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산 굴 시설량, 2009년산보다 9% 증가한 2,237만 연

2010년산 굴 시설량은 2009년산보다 8.9% 증가한 2,237만 연으로 추정되었다. 월하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설량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 어기 굴 가격 상승에 따라 양식 어가들이 2010년산 어기에도 굴 가격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경우 작년산에 비해 9.0% 증가한 1,772만 연, 전남은 8.0% 증가한 403만 연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 통영에서 시설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지난 두 어기 동안 생산이 미미했던 충남의 경우 어장 정비 및 보상 문제 등이 해결되어감에 따라 지난 어기에 비해 시설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0년산 굴 시설(5m 기준 수하연 수) 동향 >

(단위 : 만 연, %)

구분	2009년산	2010년산	작년산 대비		지역별 비중
			증감	증감률	
전국	2,054	2,237	183	8.9	100.0
경남	1,626	1,772	146	9.0	79.2
전남	373	403	30	8.0	18.0
기타	55	62	7	13.0	2.8

주 : 1)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수하연의 길이를 5m로 환산하였음

2) 기타지역은 충남, 강원, 경기, 인천임

* 당 센터 추정치

• 월하연 시설 비중, 작년에 이어 감소

2010년산 굴 시설 비중을 보면 단련산과 비단련산 모두 증가하였으나, 어기 초에 주로 생산되는 월하연은 2009년산에 이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지난 어기에 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양식 어가들이 월하시설분까지 채취하

였기 때문이다.

한편 높은 구입비용에도 불구하고 인공종묘를 사용하는 어가가 작년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패가 우수하여 생산성이 높고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10년산 굴 시설 비중 >

(단위: 만 연, %)

구분	수하연수(비중)		작년산 대비	
	2009년산	2010년산	증감	증감률
단련산	1,451 (70.6)	1,476 (66.0)	25	1.7
비단련산	282 (13.7)	423 (18.9)	141	50.0
월하연	82 (4.0)	15 (0.7)	-67	-81.7
인공종묘	239 (11.6)	323 (14.4)	84	35.1

주 : 수하연 길이를 5m로 표준화 한 것임

* 당 센터 추정치

• 9월 굴 생산량, 작년보다 4% 증가한 310톤

9월 굴 생산량은 월하연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4.3% 증가한 310톤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일부 어가들이 지난 어기의 높은 가격 수준을 올 어기 초에도 기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산이 이루어진 지역은 통영, 고성이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생산되지 않았다.

한편 고성군 수협에서는 9월 14일에 2010년산 초매식(初賣式)이 이루어졌고, 굴 수하식수협에서는 10월 중순에 초매식이 개최되었다.

< 9월 굴 생산 동향 >

(단위 : 톤)

구분	2008년	2009년	작년 동월 대비(%)
	9월	9월	
전국	298	310	4.3
경남	298	310	4.3
전남	-	-	
기타	-	-	

주 : 알굴 기준으로 잠정치이며, 기타지역은 충남, 강원, 경기, 인천임

* 당 센터 추정치



• 9월 굴 양성상태, 대부분 지역에서 양호

9월 말 현재까지 굴의 양성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수량이 풍부하고 수온도 적정하여 작년보다 성장과 비만도가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매년 어기 초 폐사가 많았던 여수의 경우, 폐사율이 매우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9월 굴 양성상태 >

지 역			비 고
경남	통영	한산만	해황이 좋아 양성상태 양호
		인평·도산만	폐사 없이 성장 상태 양호
		지도·원문만	해황이 좋아 양성상태 양호
	고성	고성·자란만	진주담치 등 해적생물 소수 부착
	거제	거제만	강수량 증가로 양성상태 양호
		진해만	진주담치 다량 부착되었으나 양성상태 양호
전남	남해	강진만	해황이 좋아 양성상태 양호
	여수	가막·장수·여수만	예년에 비해 폐사율 매우 낮음
	고흥	-	작년보다 성장도 증가
	완도	-	작년보다 양성상태 양호
	진도	-	폐사, 병해 없고 성장 작년보다 좋음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 등	채묘상태 불량 등으로 양성상태 나쁨

• 2009년 굴 채묘상태, 대부분 지역에서 양호

2011년산에 영향을 주는 채묘상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작년 및 예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굴 채묘는 대부분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통영과 고성에서는 작년보다 일찍 채묘가 시작되었다.

한편 굴수하식수협에서 조사한 경남 및 전남 여수의 올해 채묘량은 총 2,283만 연으로 전기채묘 380만 연, 후기채묘 1,683만 연, 인공채묘 220만 연으로 나타났다.

< 2009년 굴 채묘 현황 >

(단위 : 만 연)

구분	2008년		2009년	
	전기	후기	전기	후기
합계	2,415		2,283	
자연채묘	415	1,900	380	1,683
인공채묘	100		220	

주 : 수하연 기준이며, 경남 및 전남 여수지역을 대상으로 함
자료 : 굴수하식수협

가격동향

• 9월 산지가격, 작년 동월보다 하락한 kg당 4,550원

고성군수협이 9월 생굴 산지가격은 작년 동월에 비해 6.9% 낮은 kg당 4,550원이었다. 이는 작년에 비해 생산량이 다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년 가격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 생굴 산지가격 동향 >

(단위 : 원/kg)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작년 동월 대비(%)
	9월	9월	9월	
통 영	-	-	-	-
고 성	3,305	4,886	4,550	-6.9
여 수	-	-	-	-

주: 고성군수협의 굴 초매식은 작년에 비해 6일 늦은 9월 14일에 개최되었음
자료 : 각 수협

• 노량진 수산시장 3/4분기 굴 도매가격, 작년 동기 대비 11% 상승

노량진수산시장의 도매가격은 3/4분기 들어 전 분기에 비해 8.8% 하락한 kg당 6,340원에 거래되었다. 그러나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11.4%의 높은 수준이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3/4분기 굴 도매가격은 kg당 8,014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 5.9% 상승하였으며, 작년 동기보다 27.5% 높게 형성되었다.

< 생굴의 월별 도매가격 동향 >

(단위 : 원/kg, %)

구 분	2/4분기	3/4분기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7월	8월	9월	평균		
노량진수산시장	6954	6,353	6,794	5,873	6,340	-8.8	11.4
농수산물유통공사 (상품)	7566	8,043	8,038	7,960	8,014	5.9	27.5

주: 노량진수산시장은 평균 경락가격,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조사가격임
자료 : 노량진수산시장,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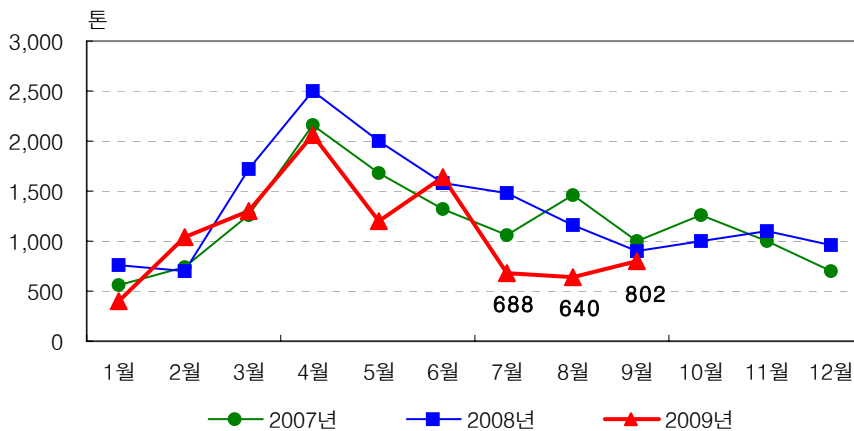
• 3/4분기 굴 수출량, 작년 동기 대비 40% 감소

3/4분기 굴 수출량은 총 2,130톤으로 전 분기에 비해 56.4% 감소하였으며, 작년 동기보다 39.7% 감소하였다.

제품별로는 통조림과 냉동굴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44.0%, 33.0%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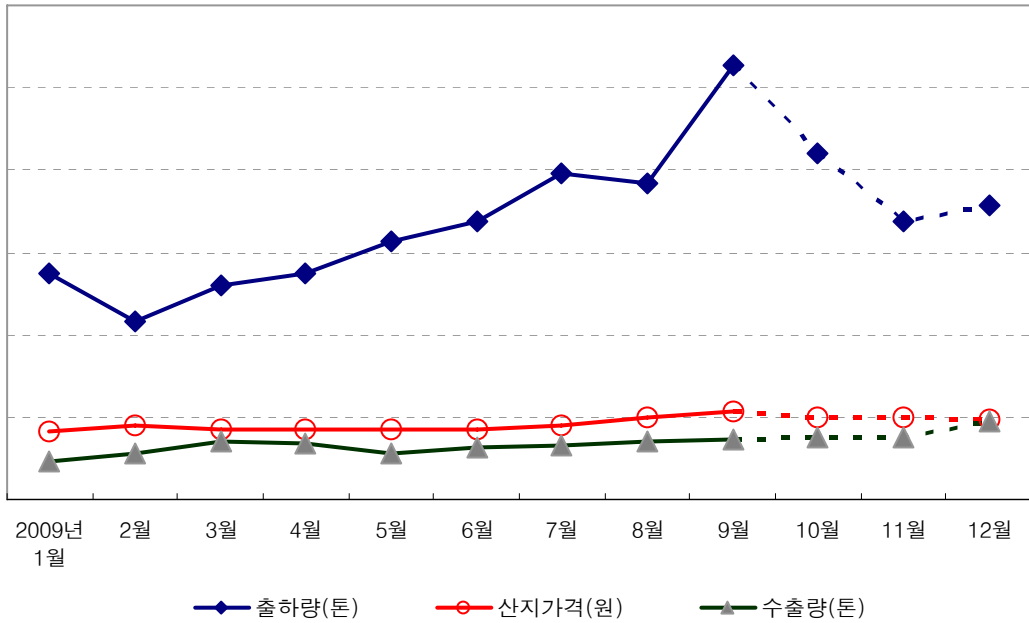
한편 9월까지의 누적 수출량은 9,764톤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23.8% 적은 수준이었다.

< 굴의 월별 수출량 추이 >



주 : 관세청 「수출입통계」를 바탕으로 알굴로 환산(마른굴은 5배, 통조림은 2.5배 환산을 적용)하였고, 치패는 제외하였음

8. 전복



수급전망

- ▶ 4/4분기는 추석 이후, 전복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면서 출하량이 3/4분기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 한편 전복 수요와 공급 모두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하지만 수요의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보여 4/4분기 동안 활전복 산지가격은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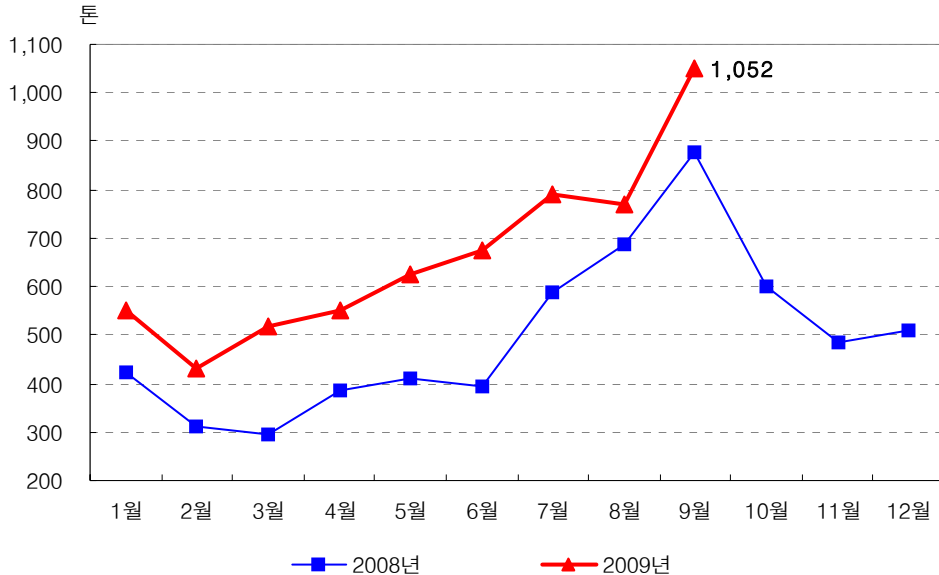
생산동향

- 3/4분기 출하량 작년 대비 약 41% 증가한 2,611톤

3/4분기 전북 생산량은 전 분기에 비해 21.3% 증가했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40.8% 증가한 2,611톤이었다.

7월 들어 여름철 보양식으로 전북 수요가 늘어 전북 출하량이 전 분기 수준보다 크게 늘어났다. 8월에도 보양식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출하량이 전 분기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추석을 앞두고 출하를 미루려는 경향 때문에 7월보다는 출하량이 약간 줄어들었다. 9월에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전북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에 전북 출하량이 8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작년 9월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났다.

< 전북의 월별 생산량 추이 >



주 : 기타 지역은 신안, 해남, 진도, 여수 등임

* 당 센터 추정치

• 기타 지역의 출하량 증가 폭이 더 커

3/4분기 완도 지역의 전복 출하량은 전 분기 대비 25.5% 증가했고, 작년 상반기 대비 12.7% 증가한 1,912톤이었다. 한편 기타 지역의 출하량은 전 분기 대비 111.2% 증가했고,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53.6% 증가한 699톤이었다.

이렇게 기타 지역의 출하량 증가폭이 완도 지역에 비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전복 수요가 크게 늘어나 완도 전복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의 큰 크기 전복 비율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 전복의 지역별 생산량 동향 >

(단위 : 톤, %)

구분	2009년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소계		
합계	1,854	791	768	1,052	2,611	40.8	21.3
완도	1,523	588	616	708	1,912	25.5	12.7
기타	331	203	152	344	699	111.2	53.6

주 : 1) 9월은 잠정치임

2) 6월 생산량 확정치는 완도 495톤, 기타 181톤, 합계 676톤임

* 당 센터 추정치

• 2/4분기에 비해 큰 크기 출하량 크게 증가

kg당 8마리 이하 큰 크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크기의 출하량이 전복 수요 증가로 인해 작년 3/4분기보다 증가했다. 반면 8마리 이하 큰 크기의 출하량은 작년 동기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이는 양식어가들이 폐사 위험 때문에 큰 크기 양성을 꺼려해 이 크기 양성물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8마리 이하 큰 크기의 출하량은 전 분기에 비해서는 153.2%나 크게 증가했다. 이는 추석을 앞두고 9월에 선물용으로 큰 크기 수요와 공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 전복의 월별 크기별 생산량 동향 >

(단위 : 톤, %)

구분	2009년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3/4분기		
합 계	1,854	791	768	1,052	2,611	40.8	21.3
8마리 이하	124	60	72	182	314	153.2	-4.3
9~11마리	355	140	152	283	575	62.0	14.1
12~15마리	428	210	214	245	669	56.3	1.7
16~20마리	491	257	220	207	684	39.3	48.4
21마리 이상	456	124	110	135	369	-19.1	83.6

주 : 1) 9월은 잠정치임

2) 6월 확정치는 8마리 이하 47톤, 9~11마리 139톤, 12~15마리 166톤, 16~20마리 171톤, 21마리 이상 153톤, 합계 676톤임

* 당 센터 추정치

• 9월 말 전복 양성물량 약 6억 8천만 마리

2009년 9월 말 기준으로 전복 양성물량은 약 6억 8,200만 마리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작년 동월의 6억 2,300만 마리에 비해 10% 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3년산과 2년산 중에서 출하 가능한 양성물량은 약 1억 4,400만 마리로 작년 동월에 비해 23% 정도 증가했다.

< 9월 전복 양성물량 >

(단위 : 만 마리)

구분	합계	1년 미만	1년산	2년산	3년산 이상
합계	68,204	30,273	23,566	13,373	992
완도	51,809	22,009	18,767	10,693	340
기타	16,395	8,264	4,799	2,680	652

* 당 센터 추정치

• 3/4분기 양성상태, 작년과 비슷

3/4분기에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전복 폐사가 작년에 이어 많이 발생했다. 특히 완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빈산소 수괴 현상이 나타나 폐사를 가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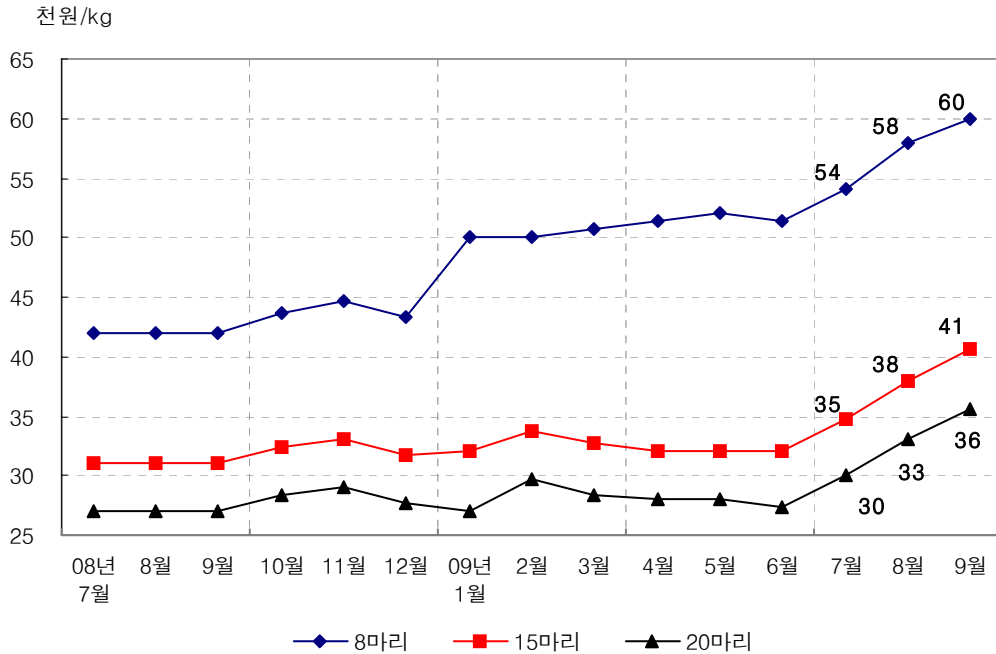
반면 전복 먹이용 다시마는 작년과는 달리 태풍 등 강풍의 영향이 거의 없어 작황이 양호하였다. 이에 먹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3/4분기 전복 양성상태는 대체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가격동향

• 3/4분기 활전복 산지가격 모든 크기에서 큰 폭 상승

3/4분기 활전복 산지가격은 모든 크기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전 분기에 비해서도 크게 상승했다. 이는 여름철 보양식 전복 소비와 추석 선물용 소비 등으로 전복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산지 전복 양성물량은 이를 충족할 만큼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활전복의 산지가격 월별 추이 >



자료 : 소안수협 노화지점

크기별로 보면,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큰 크기의 가격 상승폭이 작은 크기에 비해 더 컸다. 이는 양식어가들이 폐사 피해가 많은 큰 크기 양성을 꺼려 이 크기 양성물량이 작년에 비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 활전복의 월별 산지가격 동향 >

(단위: 원/kg, %)

구분		2009년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평균		
소안수협 노화지점 (완도군)	8마리	51,556	54,000	58,000	60,000	57,333	11.2	36.5
	10마리	43,889	46,667	50,000	53,333	50,000	13.9	38.9
	12마리	35,889	38,667	42,000	44,667	41,778	16.4	22.9
	15마리	32,000	34,667	38,000	40,667	37,778	18.1	21.9
	20마리	27,778	30,000	33,000	35,667	32,889	18.4	21.8
흑산도 수협 (신안군)	8마리	50,000	50,000	50,667	52,000	50,889	1.8	22.1
	10마리	42,333	42,000	43,667	47,000	44,222	4.5	26.3
	12마리	34,000	34,000	35,333	38,000	35,778	5.2	8.4
	15마리	31,000	31,000	32,333	35,000	32,778	5.7	9.3
	20마리	26,000	26,000	27,667	31,000	28,222	8.5	12.9

주 : 1) '산지가격' 은 전복 생산자 수취가격임

2) 2009년 1~3월까지 흑산도 수협의 전복 거래실적이 없었음

자료 : 완도군 수협 노화지점, 흑산도 수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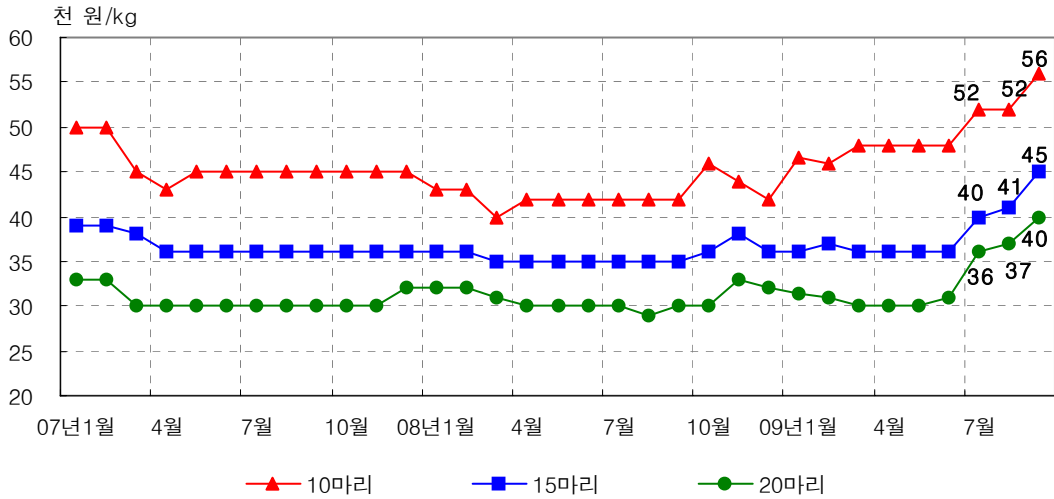
• 전복 도매가격, 지난 분기에 비해 큰 폭 상승

3/4분기는 전복의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시기이다. 여름철 고수온에 따른 폐사량 증가 등의 공급 감소 요인이 있는 반면, 여름철 복날 및 10월 추석 등은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09년 3/4분기의 전복의 평균 도매가격은 산지가격과 마찬가지로 모든 크기에서 상승하였고, 2008년 동 분기에 비해서도 모든 크기의 전복이 20% 이상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였다.

7월 이후 판매된 전복의 도매가격은 전복 관측을 시작한 2006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 활전복 도매가격의 월별 추이 >



주 : 인천활어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전복의 주요 크기별 가격임

시장별로 보면, 인천활어시장의 경우 kg당 8마리 크기가 높은 가격으로 인해 8월 이후 거래되지 않았고, 모든 크기의 전복이 전 분기 대비 kg당 5,000~7,000원씩 상승하였다. 하남활어시장의 경우에도 모든 크기의 전복이 kg당 6,000~8,000원씩 상승하였다.

한편 두 시장에서 kg당 12마리 이상 중·소형 전복 도매가격의 전 분기 대비 상승폭이 특히 컸는데, 이는 복날 등 여름철 보양식 수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활전복의 월별 도매가격 동향 >

(단위 : 원/kg, %)

구분		2009년	2009년 3/4분기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평균		
인천활어 도매시장	8마리	58,000	58,000	62,000	-	-	62,000	6.9
	10마리	48,000	48,000	52,000	52,000	56,000	53,333	11.1
	12마리	38,000	38,000	44,000	44,000	48,000	45,333	19.3
	15마리	36,000	36,000	40,000	41,000	45,000	42,000	16.7
	20마리	30,000	30,000	36,000	37,000	40,000	37,667	24.2
하남활어 도매시장	8마리	50,333	50,333	56,000	56,000	60,000	57,333	13.9
	10마리	42,333	42,333	47,000	48,000	52,000	49,000	15.7
	12마리	37,333	37,333	43,000	43,000	47,000	44,333	18.8
	15마리	33,333	33,333	41,000	40,000	44,000	41,667	21.4
	20마리	29,000	29,000	34,000	34,000	38,000	35,333	21.8

자료 : 각 시장별 조사가격

• 3/4분기 대형마트 소비자가격, 2009년 2/4분기 대비 하락

2/4분기의 대형마트 활전복 소비자가격은 2009년 2/4분기 대비 7.5%, 2008년 3/4분기 대비 12.8% 하락한 kg당 6만 1,945원에 거래되었다. 이는 복날 등으로 여름철 전복 할인행사가 지난 분기에 비해 많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바다마트의 3/4분기 활전복 소비자가격은 kg당 9만 9,958원으로 전 분기 대비 강보합세, 작년 동기 대비 약보합세를 나타내었다.

< 활전복의 월별 소비자가격 동향 >

(단위 : 원/kg, %)

구분	2009년	2009년 3/4분기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평균		
대형마트 ¹⁾	66,929	63,770	56,070	65,995	61,945	-7.5	-12.8
바다마트(바다회상) ²⁾	99,946	99,902	100,060	99,912	99,958	0.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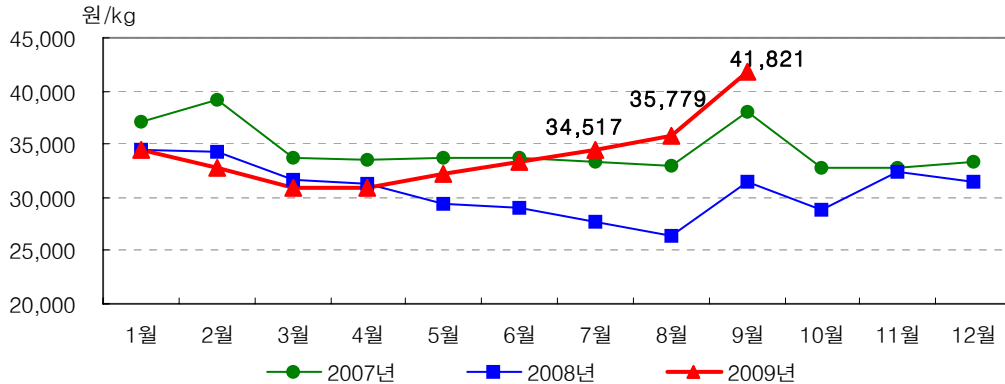
주 : 1) 대형마트 가격은 kg당 10마리 크기의 월별 평균 소비자가격임

2) 바다마트 가격은 수협중앙회 잠실점의 전복 평균 가격임(부속 일반음식점으로 부가세 포함)

• 노량진수산시장 경락가격, 전 분기 대비 상승

2009년 1/4분기 이후 노량진수산시장의 활전복 경락가격은 매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에는 전월 대비 17% 상승해 예년 동월과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매우 컸다.

< 활전복의 경락가격 추이 >



자료 : 노량진수산시장

2009년 3/4분기 노량진수산시장의 활전복 경매물량은 117톤이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4.0% 감소한 것이다. 그에 비해 활전복 평균 경락가격은 kg당 3만 7,372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31.0% 높은 수준이었다.

2009년 2/4분기와 비교하면 경매물량은 14.1% 줄었으나, 평균 경락가격은 31.0%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9월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의 경매물량 누계는 361톤으로 2008년 9월 기준 누계인 421톤에 비해 14.3% 적은 수준이었다.

< 노량진수산시장 활전복 거래동향 >

(단위 : 톤, 원/kg, %)

구분	2009년	2009년 3/4분기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2/4분기	7월	8월	9월	소계		
물량	130	44	36	37	117	-10.0	-14.0
단가	32,182	34,517	35,779	41,821	37,372	16.1	31.0

주 : 단가의 '소계' 는 분기별 평균가격을 의미함

자료 : 노량진수산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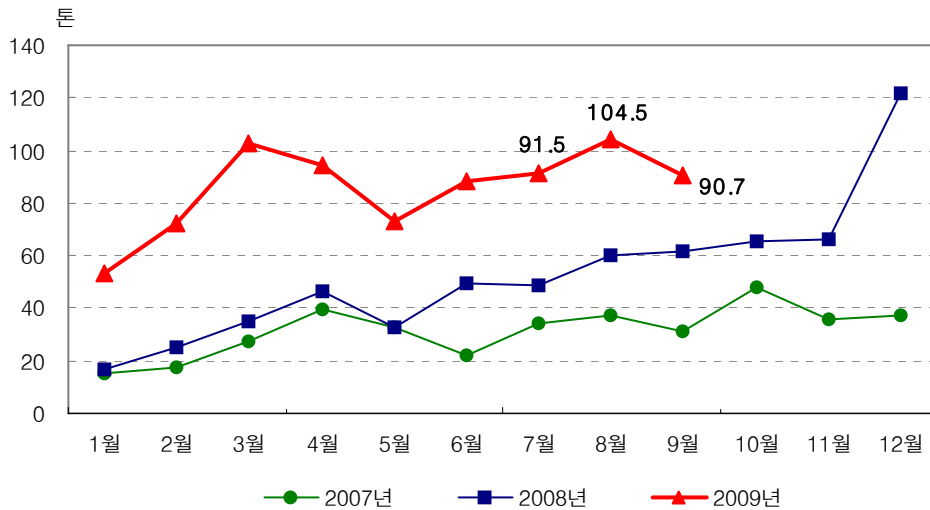
수출입동향

- 9월 활전복 수출량 누계, 전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어나

2009년 9월말 현재 활전복 수출량 누계는 770톤으로, 국내 산지가격 상승으로 일본 내 한국산 전복의 가격 경쟁력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 기준 누계인 377톤에 비해 무려 104.6%나 늘어난 수준이었다.

이는 올해 3/4분기까지의 환율이 1,300원대 이상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어 수출 여건이 좋아 수출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 활전복의 수출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3/4분기 활전복 수출량, 작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287톤

6월 이후 일본 내 명절(오봉; お盆)과 휴가철 수요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이던 활전복의 수출은 9월 국내 추석 수요 증가로 감소하였다.

3/4분기의 총 수출량은 287톤으로 작년 동 분기에 비해 68.3% 많은 물량이었다. 또한 수출단가는 kg당 34.7달러로 전 분기 대비 20.2%, 작년 동기 대비 5.6% 상승

했다.

한편 3/4분기 활전복 수입량은 전 분기 대비 52.1%나 증가한 5톤이었으나, 작년 동 분기에 비해서는 39.0% 감소한 것이었다. 수입단가는 kg당 71.7달러로 전 분기와 비슷하였으나,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2.7% 낮은 수준이었다.

< 활전복 월별 수출입 동향 >

(단위 : 톤, 달러/kg, %)

구분		2008년	2009년	2009년 3/4분기				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3/4분기	2/4분기	7월	8월	9월	소계		
수출	물량	170	255	92	104	91	287	12.2	68.3
	단가	32.9	28.9	32.2	34.4	37.5	34.7	20.2	5.6
수입	물량	8	3	0.5	1	3	5	52.1	-39.0
	단가	73.7	71.2	70	65.3	79.8	71.7	0.7	-2.7

주 : 단가의 '소계'는 분기별 평균가격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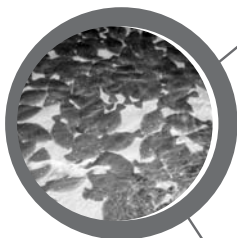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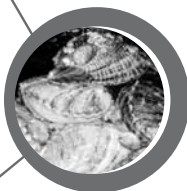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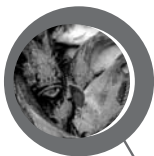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제3부

관측정보 수요자 만족도 조사

1. 조사개요 / 90

2. 조사결과 / 91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수산업관측정보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당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측정보지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여 품목별·분야별 개선방안을 찾아 고품질의 관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조사내용

- 관측정보 활용도, 신뢰도, 만족도 등

▶ 조사기간 및 방법

- 기간 : 2009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방법 : 당센터 설문조사원을 활용한 전화조사 및 FAX 설문조사

▶ 조사대상 및 응답률

- 관측월보를 받아보고 있는 어업인, 유통인 및 관련기관 전문가 528명 대상
- 응답률 : 83.7% (442명)

구분		조사대상자 수	응답자 수	회수율(%)
합 계		528	442	83.7
양식 어업인	김	120	112	93.3
	미역	60	52	86.7
	넙치	60	54	90.0
	조피볼락	60	55	91.7
	전복	60	57	95.0
	굴	60	52	86.7
	소계	420	382	91.0
유통인	소계	30	14	46.7
관련기관	소계	78	46	59.0

주 : 관련기관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수협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조사결과

조사결과 종합

- ▶ 관측정보의 활용도는 유통업자와 관련기관이 어업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어업인의 경우 ‘생산동향’, 관련기관은 ‘해외동향’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 관측정보의 신뢰도는 유통업자와 관련기관이 어업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관련기관의 경우 ‘가격동향’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어업인과 유통인은 ‘생산동향’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 ▶ 관측정보의 만족도는 어업인보다 관련기관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관측정보 내용의 질, 내용 분량, 제공시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어업인은 내용 분량에 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양식수산물 수급조절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관련기관, 유통인, 양식어업인 모두 관측정보가 양식수산물 수급조절에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 ▶ 본 조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업인의 경우 ‘생산동향’과 ‘전망’에 대한 활용도 및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련기관은 ‘해외동향’에 대한 활용도 및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관측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어업인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관측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 센터에서도 생산·가격·수출입 전망에 있어 보다 고품질의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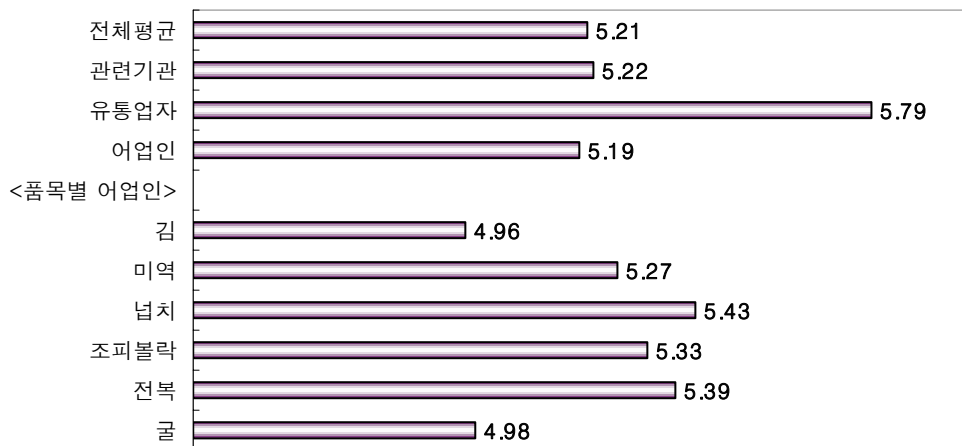
관측정보의 활용도

• 관측정보의 활용도, 유통업자가 가장 높아

관측정보의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5.21점이었는데, 이중 어업인의 관측정보 활용도는 관련기관과 유통업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넙치 양식어업인의 관측정보 활용도가 5.4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복, 조피볼락, 미역 양식어업인들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관측정보의 활용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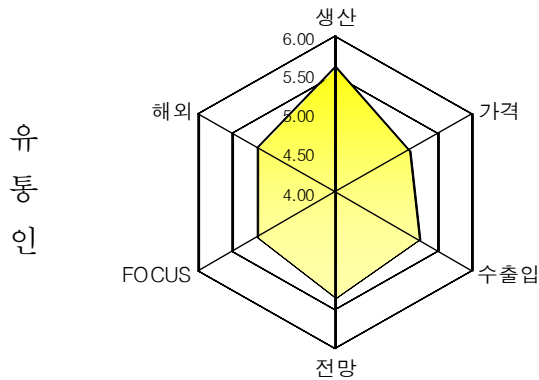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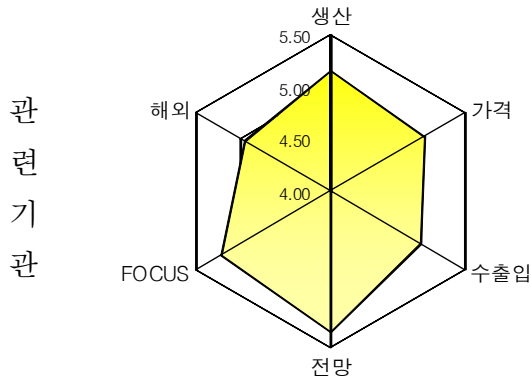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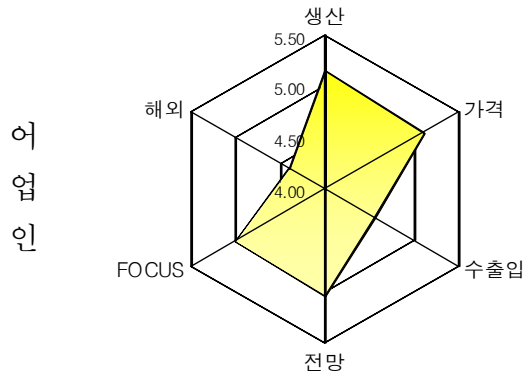
주 : 관측정보 활용도는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활용도가 높음을 의미함

• 어업인은 ‘생산동향’, 관련기관은 ‘해외동향’ 가장 많이 활용해

관측정보의 분야별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어업인은 생산동향의 활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격동향, 전망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출입동향, 해외동향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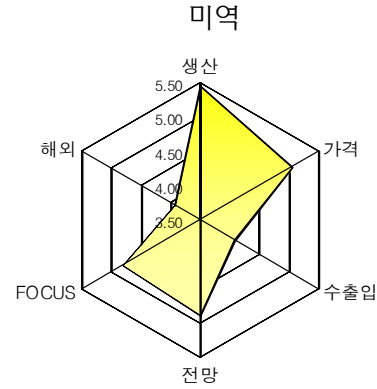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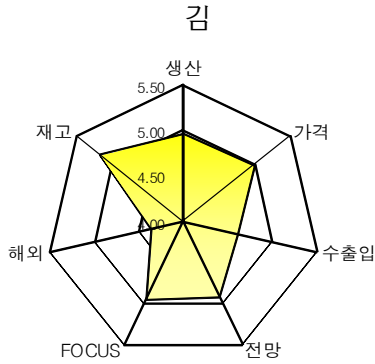
한편 관련기관은 전망과 포커스의 활용도가 높은 반면, 생산동향에 대한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어업인과 차이를 보였다. 유통업자는 생산, 전망, 수출입 동향의 순으로 활용도가 높았다.

< 조사대상별 관측정보의 활용도(7점 척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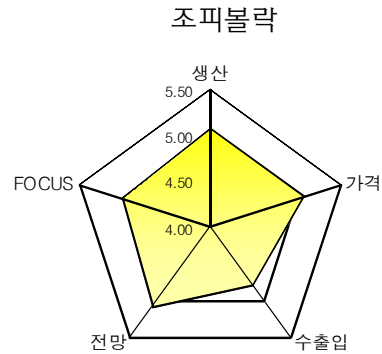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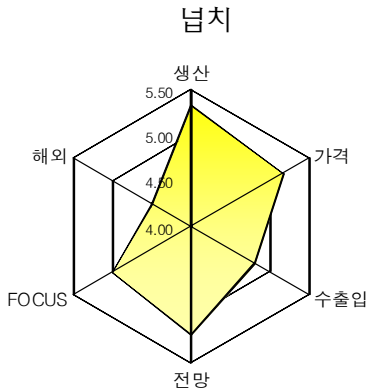
품목별로 어업인들이 평가하는 관측정보의 각 분야에 대한 활용도는 다음과 같다. 김 양식어업인들은 재고에 대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격동향, 생산동향, FOCUS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역 양식어업인들은 생산동향과 가격동향의 활용도가 높았다.

< 해조류 양식어업인의 활용도(7점 척도) >



넙치 양식어업인들은 생산 및 전망에 대한 활용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조피볼락의 경우 가격 동향과 전망에 대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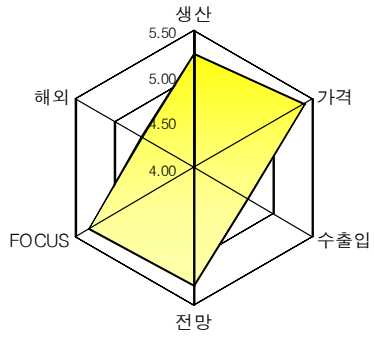
< 어류 양식어업인의 활용도(7점 척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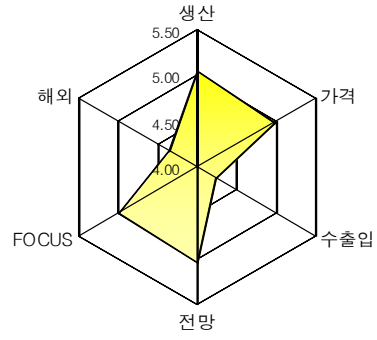
전복 양식어업인들은 가격동향에 대한 활용도가 5.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포커스 및 전망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굴의 경우 생산동향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전망 및 FOCUS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패류 양식어업인의 활용도(7점 척도) >

전북



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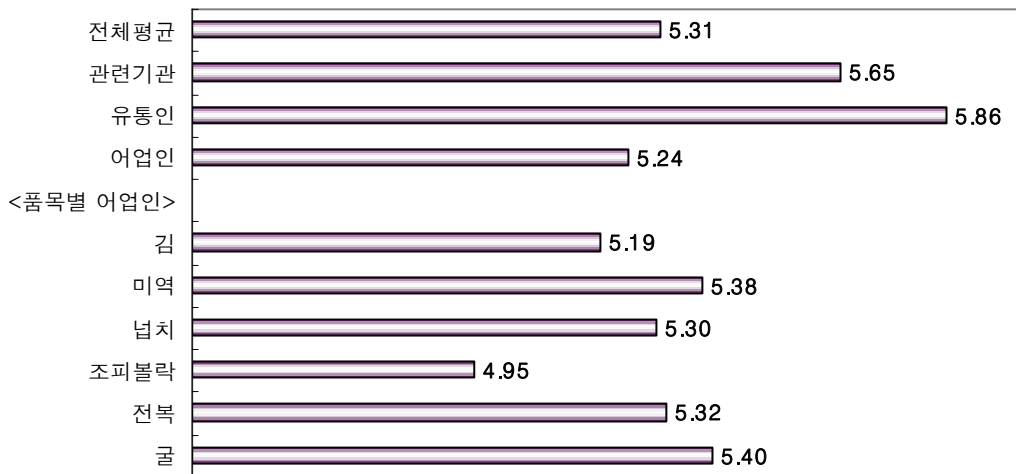
관측정보의 신뢰도

- 관측정보 신뢰도, 어업인보다 유통인과 관련기관이 높아

관측정보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5.31점으로 관측정보 활용도와는 상이하게 유통인과 관련기관의 신뢰도가 어업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굴 양식어업인의 관측정보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역, 전복, 넙치 양식어업인들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피볼락과 김 양식어업인들의 경우 다른 품목의 양식어업인에 비해 관측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 관측정보의 신뢰도 >



주 : 관측정보 신뢰도는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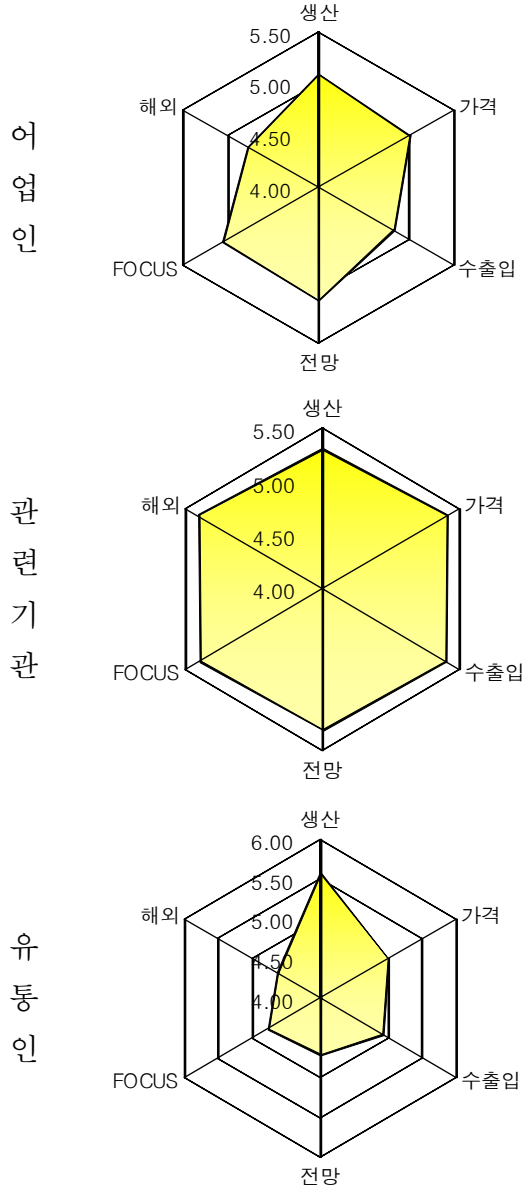
- 어업인과 유통인은 ‘생산동향’, 관련기관은 ‘가격동향’ 가장 신뢰해

관측정보의 신뢰도는 어업인의 경우 생산동향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망, FOCUS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련기관의 경우 가격동향과 해외동향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전망

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어업인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유통인은 생산동향과 가격동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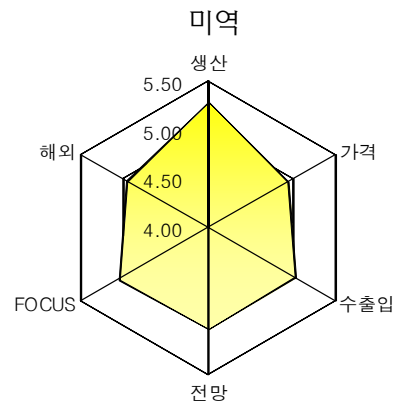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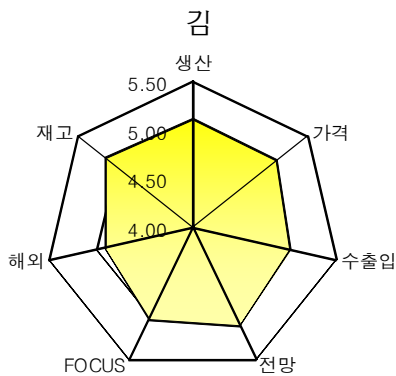
< 조사대상별 관측정보의 신뢰도(7점 척도) >



품목별로 어업인들이 평가하는 관측정보의 각 분야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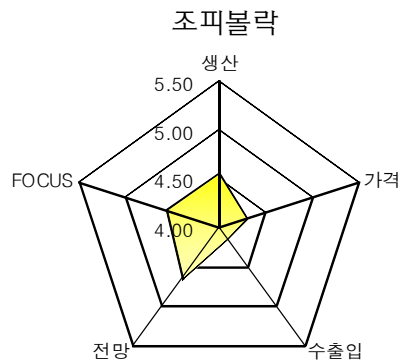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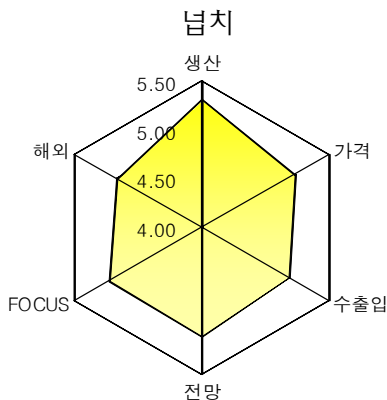
김 양식어업인들은 재고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생산동향과 가격동향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해외동향과 수출입동향에 대한 신뢰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역 양식어업인들은 생산동향에 대한 신뢰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FOCUS,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해조류 양식어업인의 신뢰도(7점 척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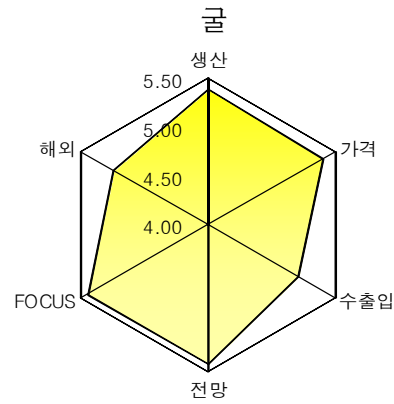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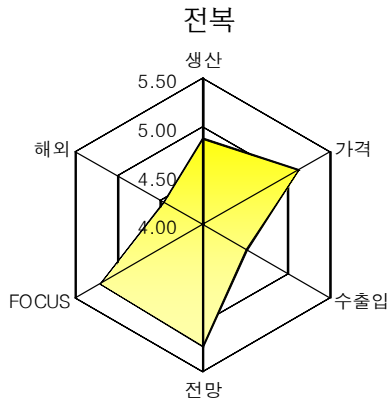
넙치 양식어업인들은 생산동향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망과 가격동향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피볼락 양식어업인들은 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FOCUS와 생산동향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어류 양식어업인의 신뢰도(7점 척도) >



전복과 굴 양식어업인들은 전망과 FOCUS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 패류 양식어업인의 신뢰도(7점 척도) >



이상을 종합해 보면 김, 미역, 넙치 양식어업인들은 생산동향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피볼락, 전복, 굴의 경우 전망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측월보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어업인들이 출하 및 가격조절을 하는데 있어 관측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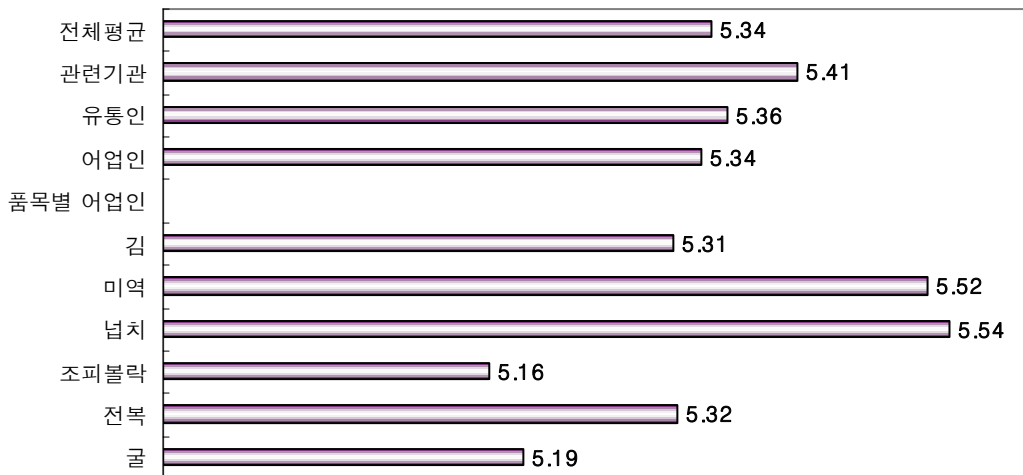
관측정보의 만족도

- 관측정보 만족도, 활용도와 신뢰도보다 높아

관측정보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5.34점으로 활용도와 신뢰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관련기관의 만족도는 유통인과 어업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넙치 양식어업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역, 전복, 김의 양식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조피볼락과 굴 양식어업인의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관측정보의 만족도 >



주 : 관측정보 만족도는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 내용 분량에 대한 만족도, 어업인이 가장 높아

관측정보의 내용 분량에 관한 만족도 조사결과, 어업인의 만족도가 관련기관과 유통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용의 질과 관측월보 제공시기에 대해서는 유통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지 내용의 질에 불만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5.7%가 “현장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내용의 분량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분량이 적다는 의견이 85.7%로 나타났다. 한편 관측월보 제공시기에 불만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어업인의 69.0%가 “늦게 도착해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해 향후 더욱 신속하고 빠른 관측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 관측정보의 만족도 >

구 분	어업인							관련 기관	유통인
	전체	김	미역	넙치	조피볼락	전복	굴		
내용의 질	5.16	5.23	5.29	5.43	4.76	5.14	5.06	5.17	5.43
내용 분량	4.96	4.78	5.25	5.11	4.76	5.21	4.81	4.91	4.79
제공시기	4.99	5.03	5.81	5.26	4.18	4.67	5.00	5.15	5.21

주 : 관측정보 만족도는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 관측정보, 양식수산물 수급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측정보가 양식수산물의 수급조절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어업인의 59.3%, 관련기관의 63.0%, 유통인의 64.3%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관측정보가 양식수산물 수급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 별로 김과 미역 양식어업인들이 관측정보에 의한 수급조절 효과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관측정보의 수급조절 효과에 대한 평가 >

(단위: %)

구 분	어업인							관련 기관	유통인
	전체	김	미역	넙치	조피 블락	전복	굴		
도움이 되었음	59.3	74.1	67.3	57.4	42.6	57.9	40.4	63.0	64.3
보통	22.3	12.5	17.3	22.2	27.8	24.6	40.4	32.6	35.7
도움이 안됨	18.4	13.4	15.4	20.4	29.6	17.5	19.2	4.4	0.0



양식어업 동향

2009년 가을호 제3권 제3호 통권 10호

ISSN : 1976-3093

-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52번지(KBS미디어센터빌딩)
TEL (02)2105-4920 FAX (02)2105-4939
<http://www.foc.re.kr>
- 편집겸 발행인 : 강 종 희
- 인 쇄 : 세븐스가든 TEL (02)2263-0066
- 발 행 : 2009년 10월 30일

